

“죽어가는 형제들의 절규가 네 귀엔 들리지 않는가”

제1차 크리스천북한포럼 · 통곡기도회 ‘갓스코리아 뉴코리아(God’s Korea New Korea)’ 주제

67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홀로 코스트 악몽 크리스천들이 일어나 행동해야

벌써 6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강산은 여섯 번도 더 바뀌었는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철통같은 삼엄한 경계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하루에도 그 안에서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 다 알 수 없다.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고,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 하지만 지구 역사상 이토록 오랫동안, 잔인하고 혹독한 홀로코스트는 없었다. 독일의 나치 홀로코스트도 13년. 무엇보다, 왜, 북한의 동포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못한 짐승 취급을 받으며 죽어가야만 하는가.

생각할 수록 눈물이 난다. 그래서 손에 손을 맞잡았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가슴이 먹먹하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참하고 끔찍한 인권 유린의 자행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죽어가는 형제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가슴을 치고 또 쳤다. 14일과 15일 양일간 캘리포니아 앨버틴 벤엘교회(손인식 목사)에서



‘해외 300인 목사단’을 비롯한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북한포럼과 통곡기도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개최된 제1차 크리스천 북한포럼 및 통곡기도회’에서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의 구호를 ‘God’s Korea, New Korea’ (하나님의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올해로 67년째다.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 이제 3년이면 남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 앞으로 3년 내에 불쌍한 북한 동족들이 압제자의 손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 같이 힘 모아 기도하자”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남가주를 넘어 미 전역에서, 스페인과 아프리카 등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해외 300인 목사단’을 비롯한 2천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 외에는... 부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해외 300인 목사단은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박희민 목사, 이원상 목사, 송정명 목사, 손인식 목사, 김인식 목사를 공동대표로 올해 초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이날 열린 제1차 크리스천북한포럼 및 통곡기도회를 시작으로, 미국 내 주요 도시와 유럽과 남미, 호주를 중심으로 앞으로 내년 말까지 두 달에 한 번 씩 이같은 행사를 이어감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손인식 목사는 이번 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된 목적은, 잊혀져 가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몇 곱절 끔찍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동족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다. 흔히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이 있듯,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한 뜻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 또한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북한 동족들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 다음 면에 계속



‘아름다운 이야기와 노래들’에 참가한 연예인들. 왼쪽부터 황보, 박미선, 이성미, 송은이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관, OC교회, OC목사회, LA동부교회가 주최한 광복 67주년 기념 콘서트 ‘아름다운 이야기와 노래들’이 12일 저녁에 LA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이성미 씨는 어렸을 때는 부유했지만 곧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 사업이 망해 어려운 삶을 맞닥뜨린다. 이로 인해 이사를 47번 다니고 4명의 어머니를 두면서 이내 곧 어린 마음을 닫게 된다.

“새엄마가 권해서 40일 동안 새벽기도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됐죠. 하지만 제 신앙은 예배당에서 제 자리에 누가 앉는 꼴을 못 보는 철저한 율법주의였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이성미 씨는 사춘기를 겪는 아들과 매일 전쟁을 치르게 된다. “아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식사를 하면서 아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에 접어

“기도하는 가운데 율법만 가르친 바리새인이라고...”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황보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노래들’

든 아들과 빈번히 부딪히면서 육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사람들이 집사 이성미가 집에서 이렇게 사는지 알까’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아들이 캐나다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를 통해 아들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인터넷 악플 때문에 심한 마음고생을 했다는 이성미 씨는 “내가 너를 알잖니”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황보 씨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는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지만 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서 “연예인이 되고 나서 언니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송은이 씨는 “8년 전부터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미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향해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됐다”며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너무 감동이 돼 눈물을 오랫동안 흘린 기억이 난다”며 운복희 씨가 작성한 ‘여러분들’ 불러 앵콜을 받기도 했다. 박미선 씨는 “크리스천이 아닌 남편 이봉원 씨를 만났지만, 기도하면 남편도 곧 변할 것으로 믿는다. 부모님도 크리스천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했다.

이날 예배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연

예인들의 신앙여정과 간증, 고백을 귀 기울이며 들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교회에서의 간증 무대는 익숙치 않아 많이 떨렸다는 이들은 서울의 총신교회 ‘살롬방’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주 화요일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영자, 김영철, 이경실, 최화정 등 많은 크리스천이 참여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라이프 섹션

13면 북새통

- » 신간소개 | 예배기도, 기독교에 관한 뜨거운 감자 외
- » 목회자의 서재 | <스울의 뱃속> 펴낸 김정호 목사

16면 헬스&라이프 다이어터를 위한 대안푸드

17면 헬스&컬처 ‘일식, 스키 메카니즘 속으로’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AX 문제 전문
 자산통계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KC Choi, E.A.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헝지사막
선교사를 위한 건강캠프
 “전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한 캠프를 아래와 같이 초대합니다.”
 2012년 9월 13(목)~15(토) (2박3일)
 강사: 김갑선 박사, 성소영 박사, 이현수 목사
 장소: Lollard 산장(LA에서 50mile 동쪽) 13762 Middle Fork Rd. Lytle Creek, CA 92358
 대상: 선교사 부부
 선착순 50명
 등록마감: 8월 20일
 후원: 기독일보

● 질병예방 및 치료
 ● 성경적 식이요법
 ● 상담심리 및 정신건강

지구촌 농업선교회 GLOBAL AGRI MISSION
 Tel. (213) 747-0168 e-mail. gammission@gmail.com
 1515 Maple Ave. #21, Los Angeles, CA 90015

6개월간 캔 모아 독거노인들에 '사랑의 무료점심 나누기' 행사

방주교회, 광복의 역사와 의미를 돌아보다

지난 15일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 가운데, 재활용 캔을 모아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훈훈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방주교회가 2년째 매달 두 차례씩 개최하고 있는 '사랑의 무료점심 나누기' 행사다. 행사의 중심엔 이 교회 담임인 김영규 목사가 있다. 김 목사는 "행사 때마다 자바시장 한인업체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힘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기고 싶었다"고 했다. 김 목사를 비롯해 샌피드로 홀세일마트에서 근무하는 한인 시큐리티 가드 10명이 틈틈이 재활용 물병과 캔 100여 자

루를 모았다. 이들은 모은 물건을 팔아 행사에 필요한 자금 2000불을 마련했다. 이들 시큐리티 가드 10명은 전원 크리스천이며, 개중 5명은 방주교회 교인이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이같은 프로젝트를 구상해 1월 부터 6개월 동안 실천에 옮겼다. 김 목사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정성스레 수집한 큰 보람이 있다"며 "특히 재활용품 수집에 도움을 준 자바시장 8개 한인 업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히 미주 3.1여성동지회가 광복절 기념 태극기를 준비했다. 식사 시간에는 다큐멘터리 영



광복절을 맞아 방주교회는 재활용 캔을 모아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상을 보며 2백여 노인들이 함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광복의 그날을 회상했

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몰랐던 자원봉사자 2세 학생들도 '섬김의 기쁨'을 누리

며 광복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하나 기자

충현선교교회, 27주년 맞아 은혜에 감사

권준 목사 "2천년 전 사도행전의 역사, 지금도 가능해"



충현선교교회 설립 27주년 기념 부흥회 마지막 날 민중기 목사가 소감을 전하고 있다.

설립 27주년을 맞이한 충현선교교회(민중기 목사)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를 강사로 초청해 27주년 기념 부흥회를 9일부터 12일까지 성황리에 개최했다.

권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행2:42-47)제목으로 12일 3부 주일예배 설교자로 나섰다. 그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늙는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며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전부다. 세상이 타락한 것은 세상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님의 꿈을 잃었기 때문이다. 5년 뒤, 10년 뒤에 이보다 더 좋아진 교회를 꿈꿔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교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교회, 가슴으로 새 영혼을 환영하는 교회"라며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7년 동안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성령이 임해 언어가 회복되고, 마음과 뜻은

함께 나눔과 배움의 삶을 살아 풍요로운 교회가 되길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담임목사는 "27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6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숨겨진 27년의 역사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시간에는 선교사의 파송식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설립기념 찬양축제가 열렸다.

토마스 맹 기자

어린이 꿈땅 통해 꿈을 키운 어린이들 고국 땅으로



꿈땅 어린이들이 광명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기념촬영했다.

3주동안 제4차 어린이 꿈땅에 참여한 7명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아진 모습으로 지난 12일 남가주광명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그들을 돌보던 풀안 선교사와 함께 찾았다. 이들은 예배를 마치고 한인타운과 헐리우드 거리와 그리피스 천문대를 관광했다. 관광 이후에는 어머니께 편지를

써 마음 속에 있던 응어리들을 털어내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같은 날 밤11시경 비행기로 고국에 돌아갔다. 한편 지난 5일은 남가주광명교회 성도들이 꿈땅어린이들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해 준 미국부모들에게 음식과 공연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빅터 박 기자

"지금은 제 2의 광복 위해 기도할 때"

남가주중부교협, 제 15회 성가 찬양제 성황리 개최



남가주중부교협 성가 찬양제에는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을 노래했다.

남가주중부교협(회장 박순경 목사) 주최로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석태운 목사)에서 12일 오후 4시에 6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제15회 성가 찬양제'가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1부 기념예배에서 박순경 목사는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부른 노래와 67년 전 광복의 기쁨을 안고 우리 민족이 부른 노래의 공통점은 구원의 노래요, 기쁨의 노래

였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는 영적인 구원의 노래가 불러져야 하며, 조국이 주안에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뤄 제2의 광복을 맞이하도록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국가 제창과 만세삼창으로 시작된 2부 행사는 조국의 광복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노래로 진행됐다. 찬양제는 감사한인교회, 생수의강선교교회,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산돌감리교회, 조이풀 선교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과 카이로스찬양동맹, 은혜찬양동맹의 화려한 울동공연, 성은혜 자매의 감미롭고 은혜로운 풀꽃연주, 청소년으로 구성된 원웨이팀의 박진감 넘치는 댄스 공연 등이 펼쳐졌다.

교협 관계자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되고 동시에 이민생활의 바쁜 삶 속에서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주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이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로 유명한 한동규 박사님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통신강자!

요금은 줄고 혜택은 늘고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 \$9.99 (첫 3개월만, 이후 \$34.99/월)

365일 한국어 상담

대한민국대표팀 금메달 13개 획득 축하 이벤트! 지금 가입하시면 고객 여러분께 \$13 드립니다.

	iTalkBB	AT&T	Verizon
플랜	글로벌 플랜	U-Verse Voice Unlimited Plan	Freedom Essentials
월요금	\$9.99*	\$35	\$49.99
미국내 로컬, 장거리 무제한	✓	✓	✓
한국 포함 27개국 유선전화 무제한	✓	✗	✗
한국 전화번호	070 번호 제공	✗	✗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월 500분	✗	✗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마트내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통화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24년 수용소 생활 증언한 신동혁 씨

“대한민국 정부는 죽어가는 동족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14일 워크샵 강사로 나선 탈북자 신동혁 씨. 북한 제 14호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난 신 씨는 24년간 수용소 생활을 하다 탈출에 성공했다. 그는 '북한 인권, 희망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워크샵 강연을 이어나갔다. 신 씨는 강연 서두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북한 인권, 과연 희망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 씨는 "내겐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다. 부디 동족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에 옮겨달라"고 강권했다.

평안남도 개천시 14호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24년간 살다 2006년 탈북에 성공한 신동혁 씨는, 자신이 경험한 수용소 생활과 탈북 과정을 생생히 증언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죽어가는 동족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북한의 대학살을 막아야 한다. 내겐 단 1분 1초가 아깝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을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답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14살 때인 1996년 어머니와 7살 위의 형이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눈앞에서 공개처형(총살)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수용소 내 피복공장 수리작

업반에서 일했던 신씨는 2005년 40대 후반의 평양 출신 태권도 사범을 만나면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를 통해 수용소 밖의 생활에 대해 낯선처음 눈을 뜨게 된 것.

"중중 세계 전 닭을 곁을 따라 뜯어먹거나 콩비지에 밥을 비벼 먹던 시절을 흘러가듯 얘기했어요. 매일 강냉이죽만 먹던 저는 꿈에 꿔도 계속 닭다리가 나타나더라고요."

6개월간 먹을 것을 상상하며 몽환에 휩싸였던 그는 결국, 전기철조망을 넘었다. 국경을 넘어 중국에 도착했다. 같이 탈출하려던 태권도 사범은 전기철조망에 걸려 죽었다.

신 씨는 정치범수용소 내 육체적 고문보다 더 끔찍한 인권유린은 '감정 고문'이라고 했다. 그 사례로 모범수 남녀를 연결시키는 '표창결혼'을 들었다. 그 역시 '표창결혼'을 통해 평안남도 개천시 14호 관리소에서 태어났다. "정치범수용소 생활은 짐승같은 삶이었다"면서 "간수가 자신의 구두에 뱀은 짐을 활으라 명하면 활아야 했다. 더럽고 치사해도 어쩔 수 없다. 살기 위해서였다. 사람이거나 가족이란 말의 의미도 몰랐다"고 그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표창 결혼'이란 노동사역을 잘하고 일에 지각하지 않고, '생활총화(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자아비판의 장)'에 열심히 임한 모범수 남녀를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 때 골라 5일 정도 같은 방에서 동거시켜 아이를 낳게 하는 제도다. 2명의 간수가 한 수용소 안에 2500명 정도의 수감자들을 감속하는데 합방할 짝은 오로지 간수에게 간택된다.

그는 "자신이 수용소에서 겪은 이야기를 하면 남한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호기심만 나타내 가슴이 아팠다"면서 "그러나 백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이 나를 참피하게 했다"고 털어놨다.

신 씨는 "매년 3월과 9월이면 빼놓지 않고 공개처형이 이뤄진다"면서 "지금도 매맞음의 공포, 굶주림의 공포, 공개총살의 공포에 떨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살리고자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호소해 봤지만 소용 없었다. 그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증거는 없지만, 내가 실제로 본 주인이다. 그들이 죽고 난 뒤 증거를 갖고 온 들 무슨 소용 있나.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 그리고 부디 행동으로 옮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한나 기자

탈북자 복송 중지 국제적 협력 요청



통곡 기도회 참석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 1면으로부터 손 목사는 "중국 내 '탈북자 복송 중지'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탈북자들을 될 수만 있다면 단 한명이라도 구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이 일을 위해 미국의 2세대들뿐 아니라 유럽, 중남미, 호주에 있는 2세대들까지 동참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미 중앙정부 및 연방정부에 계속해서 여론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세계 각국의 정부가 이 일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전략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집회 기간 순서마다 북한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포럼 중간 중간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이 나서 ▷부르짖는 기도(송기성, 김인식 목사) ▷탄식하는 기도(한기홍, 최홍주, 송정명 목사) ▷절규하는 기도(고석찬, 유진수 목사) ▷애통하는 기도(신승훈, 한중수 목사) ▷자비를 구하는 기도(엄영민 목사) ▷회복을 구하는 기도(박신철 목사) ▷은혜를 구하는 기도(김영길 목사) 등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매 강좌마다 35분 강의와 15분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 첫째 날 워크샵 강사로는 임창호 목사(고신대교수)가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과정과 북한 소학교 교과서에서의 가르침'에 대해, 탈북자로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신동

혁 씨가 '북한 인권 희망은 있는가'에 대해, 손인식 목사가 '북한 인권 운동, 북한 선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박선영 교수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나서 강연을 펼쳤다. 스타 플럼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국장을 비롯해 샘 김 KCC 사무총장 등 영어권 강사들도 참석해 북한 관련 문제들을 심도있게 나눴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재단 대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튿날에는 주성하 기자(김일성대 출신 현 동아일보 기자)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내 분위기, 전망, 통일선교', 임창호 고신대 교수가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전략 점검 및 새로운 방향 모색: 탈북자 선교 중심', 이동복 전 통일원 장관이 '월남 동포와 탈북 동포: 대한민국에서 그들은 누구인가', 김지우 시인(통일시대사립대 대표)이 '장군님의 딸에서, 주님의 딸로', 조진혜(재미탈북민연대 대표) 씨가 '탈북민을 위한 선교사의 필요성', 송기성 목사(나성한인교회)가 '출애굽관점에서 본 탈북'이란 주제로 각각 워크샵 강사로 나섰다. 한편,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재단 대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정한나 기자

목숨 건 탈북 체험, 시로 읊은 김지우 대표

"장군님의 딸에서, 주님의 딸로" 를 주제로 탈북 체험 시 낭송

"암록강을 2시간 동안 헤엄쳐서 탈북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작고 연약한 체구로 거센 물살의 암록강을 2시간이나 헤엄칠 수 있었냐고. 상상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거센 물살을 거스르고 저는 동동 떠다녔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 거센 물살을 헤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장군님의 딸에서, 주님의 딸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통일시대사립대 대표 김지우 씨. 그는 시인이다. 그는 14일 저녁, 자신의 탈북 체험을 시로 쓴 '은혜의 강'을 낭송했다.

"지나온 인생 / 쉼이 없는 죽음 / 그 추억의 실타래 풀다보면 어느새 마음은 암록강에 닿습니다 / 소용돌이 치는 강물 마음 속의 절망의 소용돌이 / 강 건너 자유의 불야성 강가에서 흘러야 했던 통곡의 피 / (중략) / 우리 아버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 / 그 분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 /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니 /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이 딸 / 홍해를 넘은 2만5천 탈북자의 몸 / 축복 받은 이 딸 / 내 맞이했던 강, 암록강은 절망의 강이었으나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의 강이었더라"

김 씨는 시를 읊은 후 "감사합니다"고 말하면서 강단을 내려왔다. 정한나 기자

한인 자매 그룹 '제이에스리' 도 동참

음악 콘서트 나서 대북 선교 필요성 호소

이번 행사는 20여명의 북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나서 다양한 내용의 워크샵을 제공해 참석자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북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한인 자매 그룹인 '제이에스리(Jayesslee)'도 음악 콘서트에 나서 열기를 더했다. '제이에스리'는 최근 유튜브(You tube)를 통해 조회수만 6천만 건 이상을 기록하며 인터넷 스타로 급부상에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그룹이다.

정한나 기자

"행동하는 신앙인 돼 달라"

박선영 전 국회의원의 호소, 무관심한 정치인들 고발

"의원님, 살려 주십시오. 지금 제 딸이 중국 당국에 붙잡혀 복송되고 있습니다. 부디 살려만 주십시오."

중국 내 탈북자들의 복송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박선영 전 국회의원의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뜬다. 박 전 의원은 어쩔 줄을 모른다.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하는데...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UN과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미국과 유럽, 심지어 일본의 정치인들에게까지 편지로 호소해 왔다. 그러나 묵묵부답이었다. "주님, 제 힘으로 도저히 저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백방으로

뛰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해 봤지만, 탈북자 복송 중지는 커녕 오히려 그 움직임이 심해가 기만 했다. 결국 그녀는 탈색 주저 않았다.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밖에 없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집회 기간 내내 특유의 나지막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그는 시종 동족의 죽음에 무관심한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고발했다.

그러면서 "골방에서 백날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할뿐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기도에 그친,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한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전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킹퍼미트와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을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연방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2071 Lajolla Fairfax ORT 메트로 Wilshire

세계대회 성공적으로 치러 주님께 영광을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그리스도의교회 세계대회' 대회장 이강평 목사

성공적인 대회 개최 목표
한국에서의 역사 짧지만
한국 복음화에 공헌해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그리스도의교회 세계대회(World Convention)' 대회장에 이강평 목사(한국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중경회장)가 선임됐다.

이 대회는 전 세계 그리스도의교회인들의 최대 축제로, 이강평 목사는 지난 7월 말에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 열린 제 18차 대회에서 대회장으로 선임돼, 앞으로 4년 동안 실질적인 총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세계 오순절대회 대회장을 역임한 조용기 목사와 침례교세계대회 총회장을 역임한 김장환 목사에 이은 한국교회의 경사다.

이강평 목사는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대한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한국대학배구연맹 회장, 한국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회장, 서울기독대학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세계대회 대회장이 되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먼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세계 대회를 끌고 나가는 것과 그리스도의교회 본부를 끌고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세계대회를 개최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재정이 들어갑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석하는 그리스도인 세계 대회를 통해 그들이 한국을 배워 가도록 할 것이고, 비즈니스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세계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을 돕는다는 결론이 나면 한국 정부가 돕게 돼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 전문가로 올림픽과 아시아게임대회를 치른 경력이 대회에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그리스도의교회를 통해 한국의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의교회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리스도의교회라고 하면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교단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20년 전 한국에 감리교, 장로교,



이강평 목사.

침례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교회는 이미 다른 교단이 잘 하고 있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한일합방 이후 한국에서의 선교 필요성을 느낀 그리스도의교회가 1930년대 초반에 한국에 존 체이스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체이스 선교사님이 한국의 그리스도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운 신학대학이 발전해 오늘날 서울신학대학교가 됐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장로교의 가장 저명한 목사가 미국 중서부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중서부 지역 전체 인구가 7만명 정도 될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회를 열면 말 타고, 마차 타고, 걸어서 3만 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장로교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 거부적인 시각으로 보는 끝에 성회장이 와서 이들을 파문을 시켰습니다.

장로교와 60% 정도 동일, 성례전에 차이

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니 인간은 그리스도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교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들이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슬로건과 더불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성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서 그리스도의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기본교리가 장로교와 60% 같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만 인정하고 성령운동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교회 후인들이 성령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단과 장로교의 차이는 성례전에 있는데, 저희는 성찬을 매주 합니다. 또 세례식을 침례로 하고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아식을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장로교와 똑 같습니다.

제가 한기총 공동의장으로 섬기고 있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교회는 한국교회 중심에 있습니다. 물론 교세는 작지만 신학적, 교리적으로 건강합니다.

제가 서울기독대 총장을 하기 전에는 전국대학 순위 200위권 밖에 있었는데 지금 103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기총에 80~9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 간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한기총에서 이단문제를 철두철미하게 검증하고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한국 선교의 역사가 감리교와 장로교의 절반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복음화에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교회는 한 지붕 밑에서 세 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처치(Christian Church·유약기)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Church of Christ·무약기), 디사이플스 오브 크라이스트(Disciples of Christ·제자회) 등이 있습니다.

세계대회는 세계 그리스도의교회 기구가 모두 연합하는 대규모 대회로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무약기파는 철두철미한 신학만 지키겠다 해서 음악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회는 조직을 하자는 주의로 가장 진보적입니다. 하버드대학이나 예일, 시카고 대학 등 미국 신학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곳이 제자회입니다.

아주 보수를 지킨 곳이 무약기파로, 상당히 발전해 미국 내에 몇 천명 모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세계대회 대회장이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교단 지도자들이 제가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뽑아 줬습니다. 제가 원래 배구 선수였고, 배구 감독을 거쳐 올림픽 정책 실장을 하는 경험이 있고 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좋게 봐 주신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2013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WCC 총회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오셨는데, 원래 저는 WCC 신학 노선과 다릅니다. 하지만 WCC가 한국 복음주의를 배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적극 도우려고 합니다.

또 2014년에는 WEA 총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이것은 복음주의 연맹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7~8억 된다고 하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선교로 돌아가는 운동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도의교회의 세계 총회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성서를 바탕으로 선교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교단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교회에 적용시켜서 뿌리를 옮기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토마스 멩 기자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최명용 지휘자 인터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광복의 의미 되새기고파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최명용 지휘자.

음악이 인생의 '전부(all)'라면 과연일까. 아니, 적어도 그에게 있어선 사실에 가깝다. 40여년을 한결같이 음악을 위한, 음악과 함께, 음악에 이끌린 삶을 살아온 음악인 최명용(사진·65) 씨.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광복절 기념 찬양제를 이끌고 왔고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성가대실에서 그를 만났다.

온화한 미소를 넘어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간직해 얼굴이달까. 마치 청아하면서도 구슬이 굴러가듯 아름다운 음율이 내내 귓가에 들리는 듯한 저 신비로운 표정이 그의 첫인상이다.

최씨는 이번 찬양제에서 지휘봉을 잡고 성가대원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다. 원래 전공은 지휘보다 성악이다. 프로필을 잠깐 언급하자면,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다녀온 뒤 한 동안 영남대 부교수를 역임했다.

미국에 건너온 뒤 교회 음악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됐다. 미주총신 음악대학장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했고, LA동양선교교회에서 오랫동안 지휘자로 섬겨오다 예나하임으로 이사 가면서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로 직을 옮겼다. 올해로 스무돌을 맞은 무궁화여성합창단과 남가주 서울대총동창회합창단 지휘자로도 활동해 오고 있다.

광복을 맞아 그가 선택한 곡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의 '자유와 평화(Chorus of the Hebrew Slaves)'라는 곡이다. 이민생활의 애환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노랫말은 사정에 맞게 개사 번역했는데 앞부분만 소개하자면 대강 이렇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사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소서. 압박과 설움에서 우리를 건지사 자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 찬양을 통해 광복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선조들의 얼을 기리는 자리가 되길 그는 염원했다.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길 소망했다. 정하나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기약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뚫!
증상별 처방/천연 한약재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리한의대) 여행자 보험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홍재철 목사 초청 선교대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주최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님을 초청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

일시 2012년 10월1일(월)~ 10일(수)

- 행사내용**
- 1) Los Angeles 성시화대회(교포 연합부흥회)
주 강사 : 홍재철 목사
 - 2) 코리언 퍼레이드 참가
일시: 2012년 10월 6일(토) 오후 2시
 - 3) 다민족 합동 결혼식
일시: 2012년 10월 6일(토) 오후 5시
장소: 중앙루터교회
주례: 홍재철 목사

* 다민족 합동 결혼식 신청자 모집*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추천받습니다. 비용은 일체 무료이며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연락바랍니다.
T: (213) 505-8228



주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
후원 :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 미주기독교목우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진
지문위원장: 김 사무엘 목사 지문위원: 박영창, 양승걸, 최학량, 정여창 목사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 공동회장: 박효우, 표세홍, 강부웅, 정해진 목사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37:5-28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창 37: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 꿈을 들으시오 7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8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꾀하옵고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 10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11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12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4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15 여덟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16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17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옳은도다 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1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리려 함이더라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떼 이سم아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이 향포요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27 자, 그를 이سم아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하였더라 28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 개에 그를 이سم아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보통 꿈이라고 하면, 상당히 허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주시는 이도,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기대와 욕구를 위해 세운 꿈은 우리가 보통 말할 듯 깨꿈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두고 세우신 계획을 그 사람에게 꿈으로 계시하시는 경우는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하나님 사람의 비전

아굽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요셉은 그가 사랑한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엄마를 그렇게 총애했듯이 그가 낳은 아들도 열한 번째 아들이었지만 특히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37:3-4 에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연사가 불평 하였더라” 했습니다.

아굽의 요셉에 대한 편애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상당한 불만거리였고 그 불만이 크면 클수록 요셉은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본문37:5-11에서 자신이 꿈 꿈을 그의 형들에게 말함으로 더욱 큰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 요셉이 열일곱 살 때까지는 아버지 슬하에서 각별한 총애 속에 행복한 나날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양 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형들에게 먹을 음식도 전달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도단으로 떠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그를 해치고자 모의합니다. 오늘 그를 죽여 그의 채색 옷에 그의 피를 묻혀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아버지께 보고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형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합니다. 이것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리려 함이었고 창세기 37:22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그곳을 지나던 장사꾼을 보고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은 이십 개를 받고 요셉을 넘겨줍니다.

요셉은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신임을 얻어 그 집의 모든 경영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요셉에게 지혜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삶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계속되는 유혹도 요셉은 신앙으로 이겨나가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왕께 범죄한 자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39:21-23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판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고민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하고는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고 또 당신의 위치가 안전해 지거든 그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말씀드리어서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이 지나도록 옥살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그 나라의 박사들과 술사들이 해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냅니다.

바로가 꿈 꿈을 이라했습니다. “자기가 하수가에 썼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 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긴지라”(창41:1-7)

바로는 요셉을 불러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더라” 합니다. 이에 요셉은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합니다.

창세기41:25-32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다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하고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를 청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편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 짓지르기를 엿드리다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

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이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창41:38-46)

이와 같이 요셉은 죄수에서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어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식을 모았습니니다. 그러다 일곱 해 흉년이 들어 애굽은 물론 전국 각처에서 기근이 심해져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아굽의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형편이었기에 열명의 아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옵니다. 이들은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 꾸었던 꿈과 같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꿈은 허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2.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리의 교회로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 노력으로 세상의 허황된 꿈을 설계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공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총애를 혼자 받는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이었었는데 열일곱 살이나 먹은 사람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랑스레 하여 더욱 큰 미움을 산 것은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요셉이 그렇게 드러내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의 끝 날까지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을 두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의 꿈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해서 거듭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인의 생활로 하나님께 인정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이루고자 하시니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 / 동부 오후 6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AMI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11시 50분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 ~ 3 / HP. 011-222-5591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정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j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xs 4: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yu.us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M.Div,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박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열매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고수적 안목의 전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의 비전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자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지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 총회예지부, 벨렐장로교회, 엘에이사랑교회, Horizon신학교, 기독교보, 한솔종합보험, 크리스찬헤럴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제미남가주향해도모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목회자 동정

류당열 목사(미주대한신학대학교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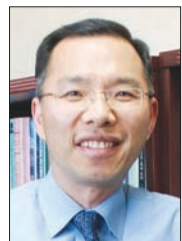
류당열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 주최로 오는 10월 13일 중앙루터교회에서 거행할 다민족 합동결혼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방익수 목사(얼바인 사랑의방주교회)



방익수 목사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비전트립을 위해 마산동부교회를 방문해 중·고등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방 목사는 최근 6집 앨범 <불가능 가능케 돼>를 출시했다.

박영배 목사(뉴라이프선교회)



박영배 목사는 오는 9월부터 5주에 걸쳐 열리는 '제2기 피스메이커' 세미나 강사로 나선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주제로 이뤄질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 30명으로 제한된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문의: 714-526-6562

김성민 목사(나성한교회)



김성민 목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한센병으로 고생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예수애양원과 캄보디아 갑뎡찬에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김 목사는 거리전도, 방문 전도, 처

소 교회 방문, 교회 사역 및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펼쳤다. 오는 25일에는 가을 제자훈련을 인도한다.



변영익 목사(벨렐장로교회)

변영익 목사는 29일에 중국 연변에 열리는 조선족 자치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방문한다. 이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연변의 선교지를 돌아볼 예정이다. 9월 10일에 한국을 방문해 47차 대신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9월 11일에 미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김경신 교수(모퉁이돌선교회)

히브리서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경신 교수(모퉁이돌선교회)가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에서 8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히브리서 강해를 진행한다. 서울대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한 그는 대신대 신약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도미 이래 모퉁이돌선교회에서 12년째 북한말 성경번역 작업을 해 오고 있다.

교회 단신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자녀양육 세미나 개최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FBM)은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에나하임에 있는 커넬 대학교(3321 W. Lincoln Ave.)에서 자녀양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부모와 자녀의 필요, 자녀의 정체성, 자녀와 좋은 관계 만들기, 자녀 훈계와 보상 등의 내용이 다뤄지며 커넬 대학교 상담대학원 금병달 원장과 금정진 사모가 강의한다. 이날 특별히 산모와 아기를 위한 태교 및 모유수유 클래스도 개설해 모유수유 전문강사인 에이미 차(C.L.E) 씨가 강연을 펼친다. 문의: 714-287-2458

나성한교회 '단기선교의 밤' 개최

나성한교회(김성민 목사)는 지난 10일 '단기선교의 밤'을 가졌다. 한국과 중국 애양원과 캄보디아를 다녀온 단기선교팀은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

사와 은혜를 간증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목사)는 2012년 가을학기 신학사(B.Th.), 교역학석사(M.Div.), 고급신학교육(A.S.T.) 과정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8월 22일(수)까지이며, 개강은 8월 27일(월)이다. 입학서류는 홈페이지(www.pts.edu)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562-926-1023 주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갈보리선교회(심상은 목사) 일본선교 특별집회

부내나파 소재 갈보리선교회가 8.15 광복절을 맞아 '광복을 넘어 선교로'라는 주제로 일본선교 특별집회를 15일에 열었다.

심상은 목사는 "과거의 아픔은 가슴에 품고 이제는 광복의 기쁨을 넘어 일본 영혼을 향한 선교로 나아가라"고 집회의 취지를 밝혔다.

강사는 타나베 유키오 목사(남가주일본인교회협의회회장, 벨리일본인감리교회 담임)가, 통역은 심상은 목사가 맡았다. 오후에는 일본선교 세미나가 이어졌다. 문의: 714-722-4805 주소: 8700 Stanton Ave. Bueba Park, CA 9062

남가주광명교회(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에서 지난 12일 4차 어린이 꿈꾸에 참여한 홀사모 자녀 7명이 미국 가정에서 24박 25일간의 홈스테이를 무사히 마치고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예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말씀사경회를 갖는다. 강사는 최준학 목사(대전새벽교회)이고, 집회는 금요일은 저녁 7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주일은 1부, 2부 예배 시간에 열린다.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T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운 CPA**


Tel (213)387-2004
Email 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제 2회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 성가 합창제

내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 146:1)



박웅태 목사
목사장로 부부찬양단 단장



전중재 교수
음악 총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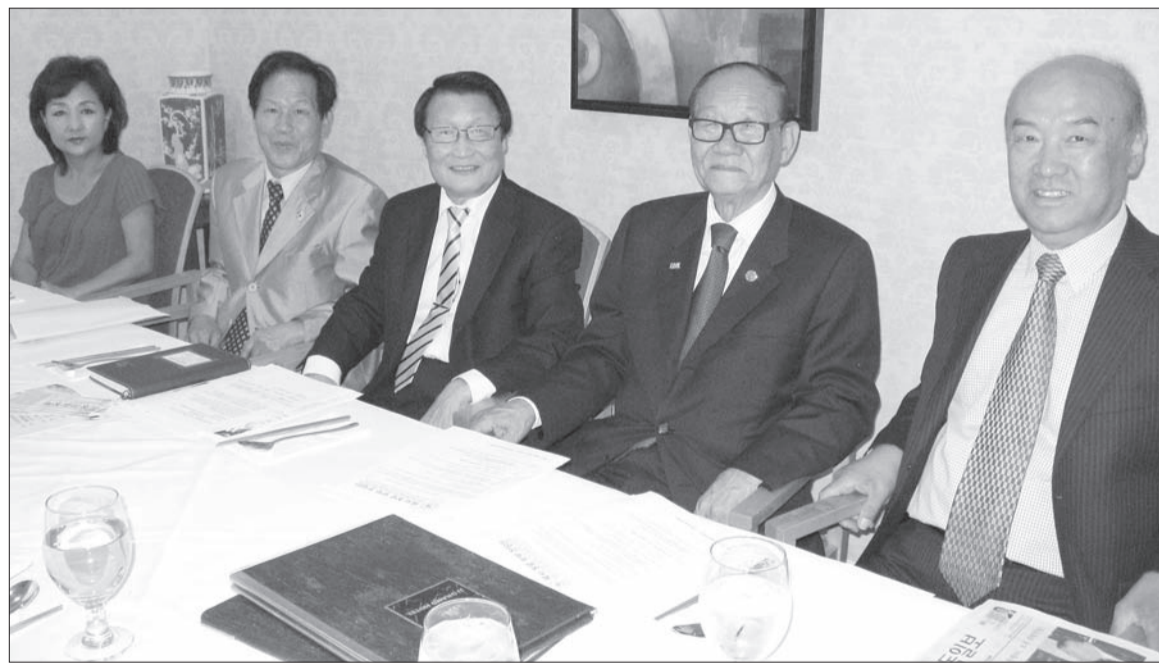
참가교회 및 합창단

- 감리회인교회 (목사: 김영길, 지휘: 최운용)
- 글로벌이 합창단 (단장: 조태숙, 지휘: 권혁래)
- 나성열린교회 (목사: 박환성, 지휘: 노혜숙)
- 대광O.B Chorale (단장: 이영주, 지휘: 김승엽)
- 목사장로부부합창단 (단장: 박중대, 지휘: 전중재)
- 미주기독교목우회합창단 (목사: 양승길, 지휘: 유의상)
- 오렌지힐교회 (목사: 백창호, 지휘: 이종한)
- 일서연교회 (목사: 정시우, 지휘: 박정신)
- 조이풀선교중창단 (목사: 이종문, 지휘: 서문목)
- 주님세운교회 (목사: 박성규, 지휘: 서병호)
- 특별출연: 이화 보컬/피아노 특별연주 : 미야 유타

일시 2012년 9월 9일 (주일) 저녁 7시
장소 일서 연합감리교회 (323)931-1087 (4350 Wilshire Blvd., LA CA 90010)
주최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문의 단장 박웅태 목사(310)242-3668
총무 박근덕 목사(714)608-1482
후원 한국일보, 크리스천윌리, 크리스천 헤럴드, 미주 크리스찬 신문, 크리스찬 투데이, 기독교보

목회자 자녀 돕는 성가합창제 열린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주최, 9월 9일(일) 오후 7시 일서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 성가합창제를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 목회자들과 관계자들.

제 2회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성가합창제가 목사장로부부찬양단(6대 단장 박웅태 목사)의 주최로 오는 9월 9일(일) 오후 7시에 일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정기공연은 11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찬양단은 지난해 7월 17일과 11월 27일에 각각 1회 성가합창제와 4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모인 성금으로 목회자 자녀들 22명에게 각 500불씩, 총 1만 1000불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웅태 목사는 "지난해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해도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제 2회 성가 합창제를 준비하게 됐다"며 "불협화음의 가정과 교회에 하모니를 이루고, 중소형 교회의 찬양 활성화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번

합창제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번 합창제 참가팀은 현재까지 총 10팀으로 일서연합감리교회, 오렌지힐교회, 주님세운교회, 나성열린교회, 감리회인교회, 미주기독교목우회중창단, 글로벌이합창단, 대광 OB Chorale, 조이풀선교중창단,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이며, 특별출연으로 이화 Vocal Ensemble and Soloist, 피아노 특별연주로 Mia Shelton이 준비됐다. 참가 대상은 각 교회 성가대 및 합창단이며, 접수마감은 8월 20일까지다. 참가비는 각 팀당 300불 이상이다. 장학금 신청서는 10월 31일까지 제출이 마감되며, 신청자격은 남가주지역 건전한 교단의 교역자 자녀로 6학년에서 대학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다. 또

한 한 가정에 한 자녀로 한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를 찬양단 홈페이지 www.pepc.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학생증 복사본 또는 재학증명서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난 3주간의 주보를 준비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보낼시 결봉에 '장학생서류'라고 기입해야 하며, 제출처는 1931 S Harvard bl., #1 LA, CA 90018이다. 주최 측은 지난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되며,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작은 교회가 선발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310-242-3668(박웅태 목사) 714-393-5622(전중재 교수) 714-608-1482(박근덕 목사) 토마스 멩기자



혈액 해독 / 기력회복

뼈, 골수 영양공급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근육강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더 많은 효능 사례는 www.sellacare.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p>발작 · 자폐증 · 무감각증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간질과 발작증세 자폐증에 무감각증으로 폐인상태, 셀라케어 복용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한국) 010-5599-2633</p>	<p>관절염 · 변비 ·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되었으며, 큰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CA)</p>	<p>중풍 · 마비 · 당뇨 · 고혈압 15년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후 7개월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회복됨. 민현자(65세, 한국)</p>	<p>♣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 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 박(72세, LA) 213-268-8381</p>
<p>자폐증 가족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 끝이 나무 같이 딱딱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으며 가족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필(16세), 010-5409-8826</p>	<p>♣ 폐암말기 50세에 찾아온 암으로 고통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p>	<p>♣ 혈액 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해 왔는데, 2달복용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010-6612-0191</p>	<p>부정맥 · 해소 ·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LA) 213-500-4471</p>
<p>♣ 유방암 완치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달동안의 많은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갈아 복용후 심한 호전반응을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LA) 213-215-6991</p>	<p>간질 ·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몇번씩 간질을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수있을정도로 건강함. 간질증세도 없어짐. 복용전 190 lb가 125 lb로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유희(26세, CA) 213-604-1992</p>	<p>위염 · 변비 복용 하루 지나면서 위가 편해져 음식을 먹게 됨. 일주일에 한번 보던 변을 지금은 매일 갈수있게 되어 행복해 함. 이주영(63세, LA)</p>	<p>불임 · 생리통 심한 생리통을 겪으며 결혼한지 3년동안 아기가 없어 병원에다니며 아기를 갖으려 애쓰던중 셀라케어 M3 셋트를 3개월 복용후에 임신이 되어 온가족이 기뻐하고 있음. 김미정(26세, FL)</p>
<p>아토피 · 건선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1개월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LA) 213-215-6991</p>	<p>파킨슨 병 3일 복용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사역자로 다시 일할수 있을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됨. 브라이언 김(70세, VA)</p>	<p>녹내장 M3 셋트 복용중 양쪽 눈에서 많은 노폐물이 나온후 두달 후 수술하지 않고 회복되었음. 김신호, (67세, LA) 323-347-9415</p>	<p>♣ 직장암 ·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있던 큰혹들이 줄어들며 복용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LA) 323-533-0624</p>
<p>반신불수 · 심한욕창 10년이 넘도록 혼자서 대소변이 불가능 했으나, 복용 3일 후부터 아들도 알아보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더니 복용6개월후부터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걸어다니고 있음. 박경숙(82세, CA)</p>	<p>♣ 전립선 암 · 부정맥 소변 힘들고 밤에도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부정맥으로 고생하였음. 복용두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않게 되고 혈액검사때마다 혈관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흐름이 원활 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CA)</p>	<p>♣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치료를 받던중 M3셋트를 먹기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석달후 완치되었음. 한국, 010-7928-7986</p>	<p>비만 · 우울증 · 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 lb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시작하면서 현재는 130 lb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 샘 양(15세, LA) 213-219-7746</p>
<p>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3일후 피검사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곽, (NJ)</p>	<p>당뇨 ·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중 M3셋트 복용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깨끗하게 완치됨. 오일동(52세, CA) 213-258-5321</p>	<p>우울증 · 불면증 우울증이 너무심해 병원에 입원. 불면증으로 수면제 장기복용. M3셋트 복용한달후 우울증이 좋아지고 잠도 잘자게 되었음. 손정희(29세, LA)</p>	<p>심한알러지 · 하지정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세우는 고통중 M3셋트 복용3일후 완치. 심한심장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CA) 310-843-0033</p>

베벌리 힐스 지점 310-800-8242 LA 본사 213-215-6991 621 S. Virgil Ave #470 Los Angeles CA 90005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굿네이버스 과테말라 현지 아동돕기 공연 마련

건강까지 지키는 아궁이 지원 사업 통해 구식 아궁이 165개 교체

애제된 연기를 내뿜는 오래된 아궁이 교체가 시급한 과테말라 부엌

새 아궁이가 마음에 드는지 할머니와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다. ♡



따뜻한 봄의 나라, 과테말라. 그곳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일제히 집 안일을 돕기 위해 아궁이 앞에 앉는다. 밖은 아직도 환한 대낮인데, 부엌은 캄캄하기만 하다. 게다가 재래식 아궁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때문에 눈조차 제대로 뜨기 힘들다.

낮은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매캐하고 고약한 냄새나는 연기가 몸에 좋을 리 만무하다. 이 아궁이 연기는 알게 모르게 성장기 아이들에게 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렴, 만성적 폐기능 저하 등 각종 질병이 이유해 한 아궁이 연기에 기인한다.

굿네이버스는 현지 아동들의 '건강지킴이' 역할 뿐 아니라 지구촌 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궁이 교체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재래식 아궁이에 비해 열효율이 높고 환기 장치까지 완비된 최신 아궁이로 바꾸는 작업이다.



굿네이버스가 후원하는 과테말라 어린이들.

굿네이버스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솔로라 주 150여 가구에 165개의 아궁이를 교체했다. 이 사업을 비롯해 현지 어린이 후원에 벨렐한인교회, 나성열린문교회, 예은장로교회, 파사데나장로교회, 세리토스동양선교회, 크로스웨이교회, 베델연합감리교회, 상항북부교회, 테메쿨라벨리한인장로교회, 샌디에고한빛교회, 은혜한인교회, 라팔마연합감리교회, 알바인한인침례교회, 남가주광명교회, 월셔연합감리교회, 한생명교회 등이 동참하고 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난 12일 과테말라 아동돕기 기금 마련 공연을 조이시티처치(강신승 목사, 2201 E.Winston Rd. Anaheim)에서 진행했다. 이 공연에는 지난 6월 에 일주일간 과테말라 자원봉사를 다녀온 Ainos 앙상블이 함께 했다.

오는 18일 오후 7시에는 라미라다 씨어터(14900 La Mirada Blvd, La Mirada)에서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연은 창립 22주년을 맞은 갓스이미지(God's Image, 대표 변용진 목사)의 연례 정기공연으로, 올해는 특별히 과테말라 아동들을 위한 공연으로 마련된다. 이번 공연을 위해 마리아와 델미 2명의 과테말라의 아동이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미국 내 한인 후원자들과 결연이 된 아동들로 이번 일정을 통해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간증할 예정이다. 이들 2명의 아동을 실제로 후원하고 있는 변용진 목사는 "올해 갓스이미지 공연은 단순한 정기공연을 넘어 현지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감동 넘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문의 (877) 499-9898 정하나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노문환 선교사, 언약교회서 감격이 있는 찬양집회

“영적으로 진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CCM 후배들에게 “잘 하고 있다” 격려



제 1세대 찬양사역자 노문환 선교사의 집회 장면.

‘노래하는 선교사’ 노문환 목사가 지난 9~11일 언약교회(담임 류재덕 목사)에서 위로와 감격이 함께 한 찬양 집회를 열었다. 노 목사는 현재 한국 CBS에서 방송 찬양을 인도하고 있으며, 초창기 CTS에서 방익수 목사와 함께 방송찬양을 인도한 대표적인 한국 1세대 찬양사역자다. 1976년부터 음악을 통한 복음전파를 시작했고, 5인조 보컬그룹 <늘노래>를 결성해 ‘잇으라시네’, ‘나 싱글벙글’, ‘나 외롭지 않네’, ‘그가 찢림은’, ‘나는 가고 싶소’, ‘평화의 노래’ 등 전도에 필요한 생활 복음노래를 듣고 학교, 군부대, 병원, 시골장터, 교회 등을 다니며 19년간 활동해 왔다. 1995년 거듭난 헌신 이후, 보다 깊은 영성으로 찬양을 통한 복음전파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간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동남아, 남미 등을 순회하며 1만여 회 집회를 가졌다. 다음은 그와의 전화인터뷰 일문일답.

앞에 선다’ 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고백하듯 나 역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 할 때는 정말이지 너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힘든 순간이기도 하다. 행복한 집회가 되길 원하지만, ‘내가 하려 할 때’, ‘내 힘으로 하려 할 때’ 오히려 잘 안 된다. 마음을 비우고 사역이 나 일이 아닌, 신앙의 고백으로 할 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 현재 기독교문화사역이 대체로 침체돼 있는 분위기다. 제2의 CCM 중흥기가 도래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내다보는가. 사역자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한다. 찬양 사역의 특성상 사역자는 뮤지션이 아니기에 음악적으로 좀 실력이 부족하다 해도 영적으로 진실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리라.
- 노장이다. 한마디로 대선배인데, CCM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후배들에게 “잘 하고 있다”고 말해 주고 싶다.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시간은 흐른다. 다만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은혜는 채워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다들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싶다.
- 그간 1만여 이상의 집회를 가졌는데, “매년 찬양 사역자로 주 앞에, 사람들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단, 컬러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테레이트 \$100 up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크리스천 유대인들, 민족적 정체성 포기해선 안돼”

‘2012 아시아 TJC2 성회’, 이스라엘 회복 논의

‘이스라엘의 회복 사역’은 대체신학의 수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란을 일으키는, 민감한 주제다. 대체신학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명이 이방 교회로 넘어갔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단절됐다고 믿는 신학이다. 이 대체신학은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이스라엘의 회복 사역’과 대체신학에 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012 아시아 TJC2(Toward Jerusalem Council2) 성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영세교회에서 열렸다. TJC2의 비전은 교회 안의 반(反) 유대주의에 대한 견고한 진이 깨져, 1세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강사로는 세계적 구약학자이자 코튼 코넬 신학대학원 명예총장인 윌터 카이저 박사와, 유대인교회연합(UMJC)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티룬연합회의 대표인 대니얼 저스터 박사, 이스라엘 두기 아웃리치 대표인 아비 미즈라히 목사, 유대연구로 유명한 김진섭 교수(백석대 부총장)와 ‘이스라엘 회복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김총열 목사(영세교회)가 나섰다.

대회 첫날 대니얼 저스터 박사는 주제 강연에서 “메시아니 유대인 공동체(크리스천 유대인)는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복 사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스터 박사는 “메시아니 유대인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유대인들도 추수하실 것이라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초기에 성경을 쓰고 이방에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모두 유

대인이며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빛진 자의 마음으로 반 유대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회복 사역’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총열 목사는 개회예배 설교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헌신할 때가 됐다. 이때는 확실히 구속사에서 마지막 전환기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는 역사에 반드시 이방교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연합하여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 작은 몫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윌터 카이저 박사는 “성경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 1:16)’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돌아온다는 사실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메시아니 유대인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민족을 구원과 열방을 축복하는 역할로 사용하신다는 것 ▲유대인들은 새 언약을 유지하는 방식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반 유대주의, 대체신학,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적 정체성 표현을 배제시키는 가르침에 대항하여 가까이 하나의 목소리가 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통일광장 기도회에서 탈북자들의 강제복속중지를 위해 촛불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남북이 하나되어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8·15 광복절 맞아 공동 기도문과 성명서 발표

통일광장기도연합과 미래목회포럼이 각각 8·15 광복절을 맞아 공동 기도문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통일한국 시대를 꿈꾸며 나가자’는 성명서에서 “통일한국 시대를 열기 위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처럼 1천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돼야 한다”며 “남북한 관계가 긴장과 갈등만이 증폭되고 있는 때에 한국교회는 분열로 얼룩진 역사를 회개하고 도적같이 임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해 지혜로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통일의 진정한 장애가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 있음을 주지하고, 지역감정과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통합과 대화합운동을 전개해 주

국의 광복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순교자들의 애국·희생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평화통일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자랑스러운 통일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통일한국을 함께 꿈꾸며 나가자”고 밝혔다.

통일광장기도연합은 광복절 67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 기도문에서 “다시는 한반도에 민족을 말살하는 전쟁이 없게 하고 북한 정권과 지도자들이 개혁 개방을 통해 민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며 “저 북녘 땅에도 생명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북한 땅에도 속히 오게 하소서”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

경을 잃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북한 성도들을 기억해 달라”며 “이 민족의 오늘과 이 겨레의 내일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으니 영광된 통일 조국, 거룩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되어 손에 손 잡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염원했다.

통일광장기도연합은 광복절을 맞아 서울역 광장에서 월요일인 13일 통일광장 기도회와 14일 통일광장 음악회를 열고, 15일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복속 반대 및 북한동포 생명·자유·인권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김진영 기자

탈북자 구호활동 하던 선교사 중국 공안에 억류돼

기독교사회책임, 전재귀 목사 석방 촉구 기자회견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우연히 만난 탈북자를 돕던 전재귀 선교사도 36일째 현지 공안에 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독교시민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서경석 목사)과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상임대표 최병두 목사)은 14일 오후 2시 서울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전재귀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재귀 목사(51세)는 부산하나교회(담임 이재우 목사, 예장 국제합동) 소속 목사로, 2010년부터 중국에서 조선족을 돕는 활동을 해오다 올해 3월 우연히 조선족인 줄 알고 만난 5명의 탈북자들을 의면하지 못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구호활동을 펼쳤다. 전 목사는 지난 6월 중순 한국을 방문하고 9일 중국으로 입국하던 중 할빈공항 입국장에서 ‘탈북자밀입국알선죄’로 무장경찰에 체포되어, 36일째 산둥성 연태시 간수소

(구치소)에 억류되어 있다.

외교통상부 확인결과 전 목사는 중국 산둥성 변방부대 무장경찰 당국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 있으며, 지난 8월 6일 한 달 만에 실시된 영사면담을 통해 “체포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원에게 압수당한 본인 핸드폰으로 수 차례 머리를 가격당하고 두 차례나 숨이 멎을 정도로 목이 졸리는 등 가혹 행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중국정부는 전재귀 목사에 대한 가혹행위를 사죄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수호할 것 ▲한국정부는 전 목사에 대한 가혹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중국정부에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 및 전 목사의 석방을 강력 촉구할 것 ▲양국정부는 각각 수감된 해당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하며 탈북난민과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신태진 기자

통합 부총회장 후보, 민감 현안에 입장 표명

제97회 총회 앞두고 소견발표 및 토론회

예장 통합 제9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 및 토론회에선 총회 임원들의 권한과 역할, 선거제도, 목회자 납세, 교회 세습 등 민감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후보들은 이에 소신 있는 답변을 내놨다.

14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리에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민경설 목사(광진교회), 임은빈 목사(동부제일교회), 김동엽 목사(목민교회), 이승영 목사(새벽교회, 이상기호순)가 나왔고 전계옥 장로(영송교회)가 장로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참석했다.

임은빈 목사는 “총회장 권한을 축소하기보다는 그 역할 중 일부를 부총회장에게 넘겨 부총회장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엽 목사는 “부총회장은 1년간 총회장을 옆에서 지켜보며 배우는 자리”라며 “훈련 받은 후 총회장이 되면 앞에 나가야 한다”고 다소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질문은 ‘목회자 납세’ 문제로 이어졌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4명 모두 직·간접적으로 목회자 납세에 반대했다.

이승영 목사는 “공익과 관련해 봉사하는 기관에는 세금 자체가 없다. 만약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면 교회 헌금에 대한 세무 사찰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고, 김동엽 목사도 “(목회자가) 세금을 내면 교회 독립성이 침해된다. 성직의 거룩함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민경설 목사는 “목회자 세금 문제가 대

두된 것은 한국교회의 대화제 신인도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사실 법에는 목회자 비과세 규정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목회자 납세를) 반대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도 무리다”고 다소 온건한 입장을 드러냈다.

교회간 ‘양극화’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정신”을 강조했다. 측면에서 의견이 비슷했다.

김동엽 목사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도시 교회와 농촌 교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승영 목사는 “농촌교회나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연금을 들 수 없는 형편인데,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이를 보전할 수도 있다”고 했다.

‘목회 세습’에 대한 입장들도 대동소이했다. 철차가 투명하다면, 기존 담임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민경설 목사는 “투명한 절차와 방법이 라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고 임은빈 목사 역시 “목사의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다. 그 길을 이어가겠다는 건 자랑스러운 것”이라며 “마치 기업을 물려주듯 하는 것에 반대”라고 밝혔다. 김동엽 목사도 “특해도 안 되지만 차별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승영 목사는 “개인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 총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진영 기자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WCJU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랠프와 로버타 윈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믿음으로 그를 온전히 믿자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4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ocrdm.org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함의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화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민종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만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원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김수철 담임목사 천양나눔에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74 Crocker St.)
1부거리에배 오전 7:00
2부서터에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김해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 신의 호를, 바르 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25 (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LA 동부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재정원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점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청소년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재지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올림픽의 열기와 함께 선교의 열기도 뜨거웠다

맨하탄 본부 둔 국제도시선교회, 연인원 5만에게 복음 전해



김호성 목사(우측)를 비롯 ICM회원들이 스페인 육상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올림픽의 열기가 계속된 런던에서 국제도시선교회(대표 김호성 목사·이하 ICM)가 이끈 500여 명의 '런던 올림픽선교회'는 올림픽 개막 일인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약 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온 500명의 참가자들은 1인당 평균 100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번 올림픽 선교에서 ICM은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 빅벤, 대영제국박물관 앞, Olympic Park, 등의 7개 지역의 가장 중요한 큰 길로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선교의 현장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힌두교인인 노부부는 ICM 전도팀이 나눠준 '인팩트 전도지'를 통해 영접기도를 따라 읽는 중 그리스도를 영접 후 남은 일생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했다.

라마단 금식 중이던 이슬람교도는 전도팀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기도 했으며, 전도지의 내용대로 같이 읽기만 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영접기도를 하는 일도 있었다.

이 올림픽 선교에 참여한 한인 디아스포라 2

세 전도자들은 "이번 올림픽 선교대회를 통해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자신들도 이렇게 추수할 곡식이 많은지 몰랐다고 고백했다.

한인 2세대들이 세계 각지에서 온 각양 각색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이번 선교는 쇠퇴하고 있는 영국교회에 도전을 던졌다. 현재 영국의 복음화율은 2-3%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번 런던 올림픽선교의 주 전도 훈련인 ICM의 임팩트전도는 언어의 제한을 넘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성령이 전도현장을 주도하게 하는 방법이다. 3명1개 팀이 협동작전으로 전도하는 이 전도방식은 현존하는 전도방법 중 가장 뛰어난 방법 중 하나로 미주에서 평가된다.

ICM 대표 이호성 목사는 "한인 2세대들이 전도만을 위해 500여 명이 모여 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럽 이민역사상 처음"이라며 "ICM의 임팩트전도를 통해 디아스포라 2세대들은 전도에 큰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의: 201-218-1800 VisionICM@gmail.com
김대원 기자

이슬람 선교, 미주 한인교회가 나설 때

무슬림이 이슬람의 최대 피해자

"무슬림을 항상 가해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생각하는 데 사실 이슬람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에 바탕을 둔 정치, 문화적인 구조적 제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며 사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에 미주 한인들이 적극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주 한인 오엠 국제선교회 '오엠캠(OM KAM)'이 오엠 이슬람 선교 50주년을 기념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슬람 선교 세미나'를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30년 이상 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섬긴 미국인 중동 선교사 부부와 오엠캠 미주 대표인 김일권, 장인경 선교사, 20년 간 중동 지역 현장 선교를 하며, 최근 시리아 사태를 겪은 U 선교사가 강사로 참석했다. 김일권 장인경 선교사 부부는 20년 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다 지난해 귀국해 본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주제 강연으로는 '중동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라마단과 중보기도', '중동 이슬람 선교의 현황과 실제', '중동선교와 중보기도' 등의 강연이 펼쳐졌다. 소그룹 세미나는 '무슬림 전도와 실제', '아라비아 반도의 선교 역사', '자스민 혁명과 이슬람권 여성사역의 실제'가 진행됐다.

오엠은 전세계 역사상 이슬람 선교를 가장 먼

저 시작한 선교단체이기도 하다. 오엠캠 미주 대표 김일권 선교사는 "올해는 미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이슬람 선교 동원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향후 2년간(2014년까지)은 미국교회와 한인교회에서 사역 보고 및 세미나를 통해 이슬람 선교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오엠 파송 1천여명 선교사들 중 지역 리더 및 대표들이 참석해 강연한다.

오엠 이슬람 선교의 특징은 '진취성'이다. 김 선교사는 "오엠은 직접 무슬림들을 대면해 전도하는 진취적 선교를 추구하다 보니, 실수와 아픔도 있었다"면서 몇 년 전 예멘 피살 사건으로 여성 사역자 1명이 희생됐던 기억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는 지난 50년 선교를 돌아보면서, 이슬람 선교의 더욱 효과적인 전략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오엠(OM) 무슬림 선교는 50년 이상의 사역기간 동안 50개국 이상의 이슬람 국가에 1천여 명의 이상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유럽, 그 외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가장 큰 선교단체 중 하나인 오엠은 우정전도, 기독교 문서 배포, 스포츠와 예술, 영상 매체 활용, 구호 및 개발 사역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무슬림 숫자는 최소 200만에서 최대 1000만까지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율로 보면 미국 전체 인구의 0.8% 정도로 알려져 있다.

웹사이트: www.omkam.org 권나라 기자

허구적 진화론, 창조론은 가장 과학적 이론

첨단 과학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발견해



한국창조과학회 부회장 한윤봉 교수

“첨단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승은 목사)는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전북대 반도체화학공학부 한윤봉 교수(한국창조과학회 부회장)를 강사로 초청해 창조과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때 진화론과 빅뱅(우주는 150억 년 전 거대한 폭발에 의해 형성됐다)는 주장)이론의 신봉자이기도 했던 그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는 진화론적 사고에 빠지게 한다”며 “자연 상태에서 물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와 혼돈 상태로 진행되지 스스로 질서를 갖추지 못합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진화를 거듭한 결과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다는 말 역시 비과학적 신화에 불과한 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우주를 조금만 살펴보면 일정한 균형과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을 금세 알 수 있다”며 “인간 중심적 과학이 하나님을 없애고 이야기하

지만, 과학을 제대로 알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 교수는 또 진화론자들이 부인하는 노아 홍수의 증거들을 자세히 열거했다. 한 교수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오존층과 함께 공상 위 물층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어 지구 온도가 균일하게 따뜻할 수 있었고, 북극과 남극에서 발견되는 아열대성 생명체의 화석이나 남극과 북극에서도 발견되는 석유와 석탄, 활엽수 화석 등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노아 홍수의 증거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발견되는 바다생물의 화석이나 대륙과 대양의 경계를 넘어 발견되는 화석 등을 예로 들었다.

한 교수는 진화론과 함께 성경을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어떤 이들은 창세기 내용이나 동성녀 탄생, 부활과 재림의 약속 등은 신화로 해석하고 있다”며 “내가 모른다고 해서 성경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 교수는 “더 이상 진화론을 과학이라 믿고 창조론을 신화로 믿는 시대는 지났고, 현대 과학이 풀 수 없는 비밀이 성경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합리적 사고로 고찰해 볼 때 이 세상은 오직 최고지적설계자인 창조주의 창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고 창조론은 가장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한윤봉 교수는 2005년도에는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가 뽑은 세계 100대 과학자에 선정됐고, 전북대 우수 연구교수 대상을 2년(2008-2009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현재 코스타 강사, 요한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1990년부터 400회가 넘는 강연을 인도해 온 창조론 전문가다. 또 2011년 7월에는 과학기술자상을 받을 정도로 신앙과 학문적 객관성을 겸비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우군' 동성결혼 놓고 내분

보수적인 흑인 목회자들 반기에 진보 측 공화당 사주 받았다 비난

동성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영원한 우군'인 흑인사회가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적인 흑인 목회자들이 동성결혼 반대를 고리로 오바마에 반기를 들자, 진보 성향의 흑인 지도자들이 이를 공화당의 사주를 받은 정치 공세로 규정해 반격을 시도하면서 논쟁이 접화되고 있다.

'오바마 지키기'에 나선 사람들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흑인 목회자들이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3 침례교회'의 아모스 브라운 목사가 그 대표적 인물로, 그는 10일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반대파의 핵심인 윌리엄 오언스 목사를 향해 "보수 북음주의자들의 얼 굴 마담"이라고 격려탄을 날렸다.

오언스 목사는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를 천명하자 오바마 지지 철회를 목표로 내건 흑인목사연합회(CAAP)를 조직해 흑인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오언스에 따르면 CAAP에는 3천700명의 흑인 목사가 가입했으며 이들의 압도적 다수가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오언스는 CAAP 결성 이후 오바마의 동성결혼 지지 철회를 위한 10만 기독교인 서명 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 출연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을 앞두고 오바마가 동성결혼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은 이런 오언스를 천군만마로 여기며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흑인 진보파는 오언스와 보수단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음모론을 동원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진보파에 따르면 동성결혼 반대 단체인 '미국의 원적 프로젝트'는 CAAP의 홍보 전략을 지원하는 광고회사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언스의 경우 올해 '전미결혼위원회' 산하 흑인소위원회의 연락 담당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다. 의혹의 핵심은 전미결혼위원회가 공화당 경선에서 밋 롬니를 지지한 단체라는 점이다.

오언스와 CAAP가 보수단체를 매개로 롬니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 이에 대해 해당 보수단체들은 동성결혼 반대 캠페인을 돕는 것은 민권에 속하는 것이라며 흑색 선전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층은 흑인사회 내 진보파의 공세는 동성결혼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해 보수성향 흑인들의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하비스트 2012 애너하임' 집회 열린다



하비스트 집회를 인도하는 그렉 로리 목사

하비스트 2012 애너하임 집회가 8월 25,26일 엔젤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는 전도를 위한 대규모 기도연합모임으로, 기존의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 또는 지인들을 초청해 복음의 말씀을 위압적이지 않고 흥미로운 분위기 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강사로는 남가주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 담임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가 나선다. 그는 19살에 30명이 참석하는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면서 목회를 시작했고, 그 작은 모임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오늘날 15,000명

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로리 목사는 해마다 '하비스트 크루세이드'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전도집회를 이끌고 있다.

또한 미국 대중이 선호하는 연설가로서 그의 화법은 현대적이고 직설적이며, 풍부한 유머 속에서 핵심을 놓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로리 목사는 매일 라디오 프로그램인 '새로운 시작'(A New Beginning)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빌리그레 이엄전도협회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집회는 25일 오후 6시, 26일 오후 4시에 각각 열리며, 인터넷으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 정한나 기자

CNN이 선정한 미국의 유명 크리스천 기업

성경적 원리 적용하는 크리스천 기업 10개

최근 크리스천 기업인 칩필레의 CEO가 동성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미국 내 크리스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9개 업체를 CNN이 선정해 보도했다.

대표적 크리스천 기업으로는 포에버 21(Forever 21), 톰스 오브 메인(Tom's of Maine), 타이슨스 푸드(Tyson's Foods, Inc), 하비 라비(Hobby Lobby), 서비스 마스터(Service Master), 헤르만 밀러(Herman Miller), 인터스테이트 배터리(Interstate Batteries), 인엔아웃 버거(In-N-Out Burger), 월마트(Wal-Mart)가 있다.

포에버 21은 한국인 장도원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로, 쇼핑백 하단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뜻하는 '3:16'이 새겨진 것으로 유명하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장 회장은 "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천연 가정 제품 회사인 탐스오브메인의 창업자인 톰 체플은 현재 크리스천 사역에 몰두하며 헌신, 실질적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는 하버드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당시, 한 교수로부터 "사업을 하나의 사역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받고, 회사 운영을 위한 영적 멘토들을 세워

성경적 조언을 얻으며 관리해왔다.

세계 최대 치킨 회사인 타이슨스 푸드의 경우, 직원들을 돕기 위한 채플린(목회자)을 고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채플린은 회사 가족들을 위해, 그들의 종교나 신념에 상관없이 자비로운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하비 라비" 아트 & 크래프트 전문점도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회사의 미션 선언문은 "성경적 원리에 상응하는 회사 운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겠다"이다. 가구 제조업체 헤르만 밀러도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리스트에 정기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작업환경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서부를 중심으로 퍼져있는 인엔아웃 버거 체인은 컵이나, 햄버거를 싸는 종이 혹은 다른 포장지에 성경구절이나 인용구가 써 있으며, 정직하고 건강한 조리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마트 역시 크리스천 기업으로 손꼽힌다. 월마트를 만든 월튼 가는 회사 직원들에게 섬김의 리더십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권나라 기자

동해 교과서 표기, 백악관서 드디어 연락

피터 김 씨, 관련 청원서 제출 3일 만의 쾌거



피터 김 씨

지난 10일 올라간 '동해 표기 청원서'는 전 버지니아한인회 대외협력국장 피터 김 씨가 청원한 것으로, 지난 3월 버지니아한인회가 진행했던 '미국 내 교과서 동해 표기 바로잡기' 청원서에 대한 백악관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 3월 23일 미국 내 심각한 교육

문제를 발견하고 동해 표기에 관한 백악관 청원서를 신청했고, 청원서에 총 10만2,043명이 동참해 서명했다.

그러나 6월 29일 미 국무부가 절대적으로 부적절하고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발표했다"며 "백악관은 답변에 항의하는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무시했는데, 이는 결국 10만 이상의 서명자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전 올려진 청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백악관이 동해 청원서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합한 답변을 하라"는 요구가 담겨있다.

14일 피터 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백악관과의 미팅 날짜가 확정됐음을 알렸다. 현재까지 확정된 참가자는 백악관 참모, 미 교육부 참모,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 피터 김 씨 고문 변호사, 피터 김 씨이며, 백악관 측에서 다른 참모들도 초청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권나라 기자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 오전 8:00 1부예(EM) 오전 9:45
2부예 오전 11:00 2부예(EM) 오후 1:30
3부예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성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 오전 8:00 3부예 오전 11:30
2부예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 새벽예배 오전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 오전8:0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2부예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12:00 오전6:00(토)
AWANA 오후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8:00(매월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1부예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c.org

1부예 오전 7:30 4부예 오후 1:00
2부예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 오전 11: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 오전 7:30 5부예 오후 2:00
2부예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4부예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김한오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971
T. (562) 860-5451 / ilovecp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 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온전한 영혼구원과 8.8.8.8 나눔을 이끄는
살신자, 생애희생을 감행하시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2부예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 오후 11:30 주일학교 오후 08:00
4부예 오후 2: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성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회,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r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사우스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 오전 8:00 1부예(EM) 오전 11:00
2부예 오전 11:00 2부예(EM) 오후 1:15
3부예(영)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강을 건너 세게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1부예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 오전 11:00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과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 오전 8:00 3부예 오전 11:30
2부예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11:00
3부예 오전 11:30 4부예 오후 1:15(EM/청년)
5부예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을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 오후 1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동부예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00(토)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십일)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분당)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효능 찬사 앵콜 세일!!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8월 31일까지)

프로모션 B (8월 31일까지)

프로모션 C (8월 31일까지)

오리지널 7병+ 알파 1병 = 8병 (260불)

오리지널 4병+ 알파 3병 = 7병 (270불)

오리지널 2병+ 알파 4병 = 6병 (260불)

100불 (오리지널 8병도 100불)

100불

100불



신제품

알파

5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아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장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길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관할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기간을 다 돌아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내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응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BOOK



通

신간 소개

예배기도

이대규 지음 | 콰란출판사 | 296페이지

이 책은 교회 예배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예배부름기도'와 '참회기도'를 이끌어 주는 글로 구성됐다. 예배부름기도에서는 주제가 있는 기도를 구상하여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의 주제를 찾아 기도문을 집필했다. 월별로 따라 기도문을 구성하여 실제 예배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개개인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직접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참회기도를 위한 멘트'를 수록했다.



찬양을 온몸에 새겨라

박광리 지음 | 생명의말씀사 | 200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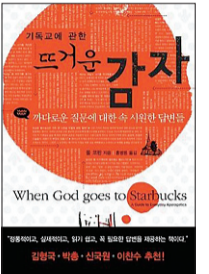
평신도들을 위한 찬양 지침서다. 저자 박광리 목사는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쉽게 부르는 찬양의 현실에 대해 고민한다. 그리고 찬양을 삶으로 구현되는 신앙으로 연결하기 위해 기록, 영광, 송축 등 추상적이지만 한 가사들을 삶의 이미지와 연결시킨다. 예배를 준비하는 도구와 노래로 가볍게 전락해버린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며, 삶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기독교에 관한 뜨거운 감자

폴 코판 지음 | 새물결플러스 | 344페이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기독교에 관련된 질문에 시원한 답변을 제시하는 책이다. 탁월한 변증가로 꼽히는 폴 코판이 현실적 이유들에 대하여 요긴한 기독교적 통찰을 전하고 있다. 다른 종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경의 전쟁과 이슬람의 지하드는 어떻게 다른지 등의 질문에 대해 실제적인 화두를 제공한다.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INTERVIEW

<스울의 뱃속> 펴낸 센터빌초대교회 김정호 목사에게 듣는다

수년에 걸친 혈액투석과 세 번에 걸친 신장이식 수술로 인해 지칠대로 지쳤다. 이토록 오랜 육신의 가시로 인해 그는 겸손을 얻었고, 하나님과는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됐다. 그리고 2년 전 그는 자서전 '스울의 뱃속'을 통해 자신의 신앙 세계의 영롱한 빛을 뿜어냈다. 이렇게 약함 속에서 진정한 강함을 맛본 김정호 목사. 그에게 책을 매개로 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재 센터빌 초대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그는, "책과 더불어 삶의 자그마한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김 목사와의 일문일답.

1.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책 한 권을 꼽는다면?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웬이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책입니다. 이 책은 <상처 입은 치유자>, <영성> 등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저자가 하버드의 교수 생활을 내려놓고, 정신지체장애우 공동체에서 사역할 때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21세기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약 100페이지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책이지만,

오랫동안 대학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과, 또 정신지체장애우 공동체에서의 사역을 총 정리한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21세기 크리스천 리더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리더십', '영혼을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1세기 크리스천 리더십은 힘과 지배의 리더십이 아니라 무력(powerlessness)과 겸손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무력과 겸손의 리더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이며 따라서 이러한 리더십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처음 접한 순간부터 제 가슴을 뛰게 한 책, 성경과 더불어 언제나 가지고 다니고 싶은 책, 헨리 나우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2. 목회자로서, 책과 함께 하는 기쁨은?
어릴 때부터 책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책을 많이 사주셔서 마치 밤을 먹듯이 책을 읽어났습니다. 지금도 선물 중에서 책 선물을 제일

좋아합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책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은 설교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생각의 보편화 내지는 글로벌화를 가져다주기도 하구요. 만약에 제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제 설교는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의 범주를 넘지 못하겠지요. 그럼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미안한 일입니다. 목회자들은 성경과 동시에 책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저서 <스울의 뱃속>이란 책 제목은 어떻게 나오게 됐나?
구역성경 요나서 2장 2절에 '스울의 뱃속'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 들으셨나이다". 신장이식을 하기 전에 몇 년에 걸친 혈액투석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 해변으로 뿜겨져 나갈 것처럼 저도 혈액투석실에서 뿜겨져 나가게 해 달라"구요. 결국 제가 신장이식을 하게 되어 혈액투석

실에서 뿜겨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됐고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요나가 회개한 장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요, 제 삶의 간증입니다.

4. 책을 쓰는 것과 읽는 것은 어떤 점이 다른가?
저자 입장에서 책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독자 입장에서 책을 읽는 것은 반대겠지요. 그래서 책은 저자와 독자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책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것이지요. 제가 책을 읽을 때는 반대로 저자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5.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지난 15년 동안 수차례의 수술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년 가을부터는 선교여행을 하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선교여행을 한 사도 바울처럼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선교여행을 하다가 어느 이름 모를 선교지에서 마지막 삶을 마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오는 9월에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에서도 출간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목사

프로 바이온의 바이오텍 이온수기는 물 맛이 깨끗합니다

BTM 501 T

- 일시불 구입시 판매가 \$2,500 + tax (\$소비자가 2999 특별 할인 \$500) : 필터 3세트(\$495 상당 3년분) 일시불 또는 3회 분납시 적용
- 무이자 할부 판매 12개월, 소비자가 \$2999 + tax : 필터 3세트(\$495 상당 3년분)
- 무이자 할부 판매 24개월, 소비자가 \$2999 + tax

3년간 전해조 청소 Free, 3년간 A/S Free, 이사 이전설치 1회 Free 입니다.

BTM 102G

소비자가 (순도 99.99% 백금 전극판 5장) : \$2500 + tax
 일시불 구입시 \$700 cash back - \$1799 + tax (필터 1 set + Free 전해조 청소 및 A/S 3년)
 3회 분납시 \$700 cash back - \$1799 + tax (Free 전해조 청소 및 A/S 3년)

BTM 501 T는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 심플한 디자인과 LCD 창의 최신 디스플레이
- 손잡이의 푸른색 무드등
- 이온수기 전체 high glossy 코팅처리
- 7장의 99.99% 백금 티타늄 전해조
- 대한민국 퍼스너 브랜드 상.
- FDA, KFDA 인증

렌트보다 더 싼 12개월 무이자 할부, 24개월 할부 ● 이 모든 행사는 Pro Bion에서만 진행됩니다.

*한국에는 수십개의 이온수기 회사가 있습니다. 그중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술력으로 만들어 졌는지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시장 점유율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바이오텍 이온수기는 28년 동안 한우물만 파며 100%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되고 미국, 유럽, 중국, 이온수기의 중주국인 일본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만의 특징점

1. 유량에 관계없이 적정 pH 자동 맞춤 기능
2. 어린이,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 기능 음성안내
3. 모든 작동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신형 LCD액정 화면
4. 99.99% 백금 티타늄 전극판 7장을 사용한 업계 최고의 전해조 시스템
5. RSC 반도체 회로에 의한 자가 진단 시스템
6. 저수조가 따로 없어 위생적이고 주방에 어울리는 컴팩트한 디자인
7. 자동세정, 자동배수 및 필터 교체 시기 알림 기능

문의전화 714.736.0802
8362 Artesia Blvd #C Buena Park, CA 90621

H마트 리빙헬스
562.972.4548

대리점모집 개인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

info@probioninc.com

집중력을 높이세요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요즘 런던 올림픽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들을 보면서 또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은 '집중의 중요성'입니다. 세계적인 유명선수들이 즐비한 가운데 펼쳐지는 경기인지라 선수가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 득점이 나오는 것보다, 얼마나 실수하느냐에 따라 득실이 가려지는 상황을 참 많이 봅니다.

집중력 중요합니다. 다 이겨놓은 경기라도 한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짐으로써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무엇을 하든 집중력이 분산되면 치명적입니다.

몇백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전쟁의 귀재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카이사르, 그리고 나폴레옹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전투에 임했

다 하면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둔 백전백승의 비결은 바로 '집중력'이었습니다. 일단 병사들이 전투에 참여하면 그들은 병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전투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승리의 환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고, 소유하고 싶은 게 많아서 힘이 분산되면 신앙생활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와 기쁨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집중력은 성취의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에디슨은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연구실의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며 하루에 20시간씩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뉴턴은 그의 연구를 위해 며칠씩이나 방문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중력과 성취 사이에는 분명

한 공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집중력'을 통한 사역을 전개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핏방울이 튀기는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인류구원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는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따르는 삶에 대한 '집중력'을 요구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 9:62)"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감격을 얻는 방법이 바로 집중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의 원칙이 그의 사역의 최우선 원리였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

려고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2)" 바울은 사역 속에서 탁월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집중력이라는 말은 '힘을 가운데로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의 분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이곳 저곳으로 분산시키면서 성취하려 함은 커다란 모순입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생활에,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빛의 집중이 쇠탕어리도 잘라버립니다. 바위도 깨뜨려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또는 능력을 신앙생활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풍성하게 변화됩니다.

일년의 허리 부분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할 때에는 허리띠를 고쳐 맵니다. 힘은 허리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한여름 내내 어정어정 노래하며 지내던 여치는 겨울준비의 기회를 놓치지 않, 땀 흘려 양식을 모은 개미는 긴 겨울에도 염려 없이 지냅니다. 여름의 해는 한없이 길어 낮과 밤의 비율이 거의 3:1에 달합니다. 사계절 중에 이 여름을 잘 사용하면 삶이 훨씬 더 양질이 될 것입니다. 밝고 긴 낮 시간을 더 바람 있고 가지 있게 사용한다면, 그리고 짧은 저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면, 우리는 훨씬 맑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은 얼른 지나가면 좋을 계절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유익한 계절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한의 시련과 시험이 지나고 느긋해졌을 때, 그 때가 영적으로 여름에 속한 계절입니다. 그때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놓으면, 그리하여 편안할 때에 어정어정 하거나 건들건들하지 않고 깨어 근신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펴서 읽읍시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말에 "어정철월, 건들팔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어정어정하는 사이에 7월이 가고, 건들건들하는 사이에 8월이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지금도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날씨는 100도를 오르내려 잠을 설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여름에, 올해처럼 올림픽까지 열리는 해의 칠팔월은 더 맥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8월은 여름이 아닙니다. 8월 8일이나 9일은 가을로 들어서는 입추(立秋)입니다. 그 때로부터 보름 정도가 지나면 더위가 그치고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 처서(處暑)가 됩니다. 그러니까 8월은 여름이 아니고 가을인 셈입니다. 이렇게 세월은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앞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칠팔월이야말로 한 해의 허리

가계야치 (家鷄野雉)



김세환 목사
LA연함감리교회

습니까? 더욱이 그 목사님의 훌륭한 인품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서 항상 옆에 있으면 그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벗들도, 그리고 피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귀한 일터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가볍게 치부해 버립니다.

중국 진나라에 왕희지(王羲之)라는 최고의 명필이 있었습니다. 그의 서체에 매료된 사람들이 앓다투어 그의 필체를 배우려고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익(庾翼)이라는 관리도 왕희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명필이었습니다. 붓글씨를 아는 사람들 중에는 왕희지보다 유익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유익의 자녀들과 식솔들은 유익보다 왕희지의 서체를 배우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유익은 답답한 마음으로 "집 안의 닭은 쳐다보지도 않고, 들판의 꿩만 귀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가계야치(家鷄野雉)라는 말을 하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남의 손에 있는 "보물"은 내 손안에 있는 "고물"만도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의사로부터 "이제 다시는 커피를 마셔서는 안된다"는 기가 막힌 통보를 받았습니다. 커피라면 사족을 못쓰던 "커피광"인 제가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럴 중 알았으면 좀 더 커피를 소중하게 마실 것을"하며 후회했습니다. 커피는 미국에서 죽을 때까지 마실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어찌 소중한 것이 커피만 있었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계야치"는 내게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바로 어리석은 나를 위해 생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성경상식 바로 알기

욥기 8:7



한석호 목사
남가주임마누엘교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8:7에 있는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다. 개업, 위로, 사업 확장 등 심방과 축하에 어김 없이 사용되고 사업장과 가정에도 많이 걸려 있는 성구이다. 이 구절만 보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로 보인다. 그러나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구절은 욥이 하나님께 고난의 시험을 받는 과정에서 등장한 그의 친구들의 충고 중 하나로, 빌닷이 욥의 믿음과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책망하며 나온 말이다. 그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 하며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 시키실 것이다"에 이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한 것이다. 자신의 관점에서 욥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의도와 관점을 간과한 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 한 인텔리적인 충고라 할 수 있다.

빌닷을 포함한 4명의 친구, 소발, 엘리바스, 엘리후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욥에게 다가가 그의 고통이 죄에서 온 것이라며 책망하고 조롱하며 비아냥 거렸다. 욥 42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그들을 책망하셨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이 욥8:7절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축복의 말로 둔갑해서 쓰고 있는 아이러니를 본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흔들리지 않는 기준



남성수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오래전에 뉴저지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을 향해 출발한 적이 있었다. 더운 날씨 탓에 타자마자 차 안은 그야말로 한증막 같았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얼마 후 로컬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들어서는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하나 느끼게 되었다. 평소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창문을 닫고 운전했기에 몰랐는데, 창문을 열고 달리니까 시속 70마일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속도 때문에 차안에 있었던 나는 무서운 느낌과 함께 야릇한 스릴이 느껴졌다. '아!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스포츠카를 타는구나...'

공항에 도착한 후 한 시간 쯤 지났을 때 내가 탄 비행기는 맑은 날씨와 함께 노련한 조종사 덕분에 아주 순조롭게 뉴저지를 향해 비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방금 공항에 오기 전까지는 시속 70마일의 속도도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시속 500마일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빠르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냥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감각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안에서 틀어지고 있는 에어콘의

바람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춥다고 느껴지지만, 어떤 이들은 덥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느낌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교회에 심분거리를 오면서도 멀다고 느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한 시간의 거리를 오면서도 교회가 가깝다고 느끼는 이도 있다. 이처럼 인간의 감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에 기초를 한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려 할 때,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때에 자신의 느낌과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것

이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이 특성이 얼마나 위험하면, 이 기준대로 한다면,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어지게 된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연애와 낙태이다. 내가 좋으니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무서운 자기편의와 이기주의가 그 속에 스며 들어 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과 주관대로 살면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인간의 느낌과 주관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간이 넘어서는 안되는 기준이 무엇이며 인간이 바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할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 이것은 범으로도 감압이나 물리적인 제재로도 되지 않는다. 인간은 곧 법을 바꾸고 더 큰 힘과 감압을 동원하여 자신의 느낌과 주관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 밖에 없다. 바로 말씀이다.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말씀은 인간의 마음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 인간을 살리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참 기준을 찾지 못해 저마다 느낌과 주관대로 살아가며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다.

'강남 스타일' 을 바라보는 시각



주효식 목사
뉴욕정원교회

무시하고 적대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상 대중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더 이상 기독교 문화는 세상 문화의 현장에서 독립을 고수하기 위해 고립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도리어 대중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창조적 문화로서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한다.

얼마 전 "나는 가수다. S2"에 소향이 출연하면서 기대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동안 교회 안에 갇혀 자신의 기량을 알릴 수 없었던 한을 풀기라도 하듯 목청껏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 7년 전의 소향을 떠올렸다. 그 당시 소향은 철저히 세상과 선을 긋는 사역의 경계선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섭외가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는 것이다.

올림픽 종합순위 5위로 역대 종합 성적 최고라는 쾌거를 이루며 런던 올림픽이 폐막 되었다. 경기를 지켜 보느라 밤잠과 일을 설쳐야 하는 부담과 불행함도 크고 많았으나 선수들의 드라마틱한 선전과 메달소식은 모든 피로를 한방에 날리는 보약과도 같았다.

한편 이러한 올림픽 분위기에 편승하듯 세계인의 주목과 이목을 끌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대중가요 "강남 스타일"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대중문화 평론가들에게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왜 주목을 받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독특하다. 재미있다. 중독성이 있다"고 답한다. "B급 문화는 주류문화에서 벗어난 하위문화를 의미하지만, 주류 문화가 채울 수 없는 어려운 구석을 긁어주면서 마니아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다" 라든지 '강남스타일'의 재미있는 노랫말과 그의 살짝 못한 외모, 우스꽝스러운 춤을 인기 비결로 꼽는다. 더불어 중독성 강한 일렉트로니 사운드의 반복과 청각적, 시각적 자극에 열광한 것이라 해석이 가능하다. 정신과 전문의는 "사이가 인류의 공통적인 '집단 무의식'을 건드렸다"는 해석을 내렸다.

의외의 분석도 눈길을 끌었다. "이 뮤직비디오를 만든 이들이 이 모든 것을 의도했을 리는 없다. 그러나 의미화가 제작자의 의도와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융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의도만을 해석의 중심에 두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해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고, 이 의미는 사회라는 합의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석과 분석 그리고 평가와 의미 부여와 같은 논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만물의 현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직결되어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기"의 관점과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반응이 중요하다. 단순한 대중문화를

그러나 나는 오히려 반론을 제기했다. "각 분야에서 재능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영향력을 미쳐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확장하고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봐요."

"강남 스타일"에 대해 앞서 언급한 전문가들의 평가의 공통점은 "재미와 중독"으로 요약된다. 세상문화의 특징은 재미 추구다.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며 잠재되어 있는 타락한 본성을 깨운다. 그들은 이것을 재미라고 한다. 그렇다고 정죄하고 돌아설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몫이고 사명이다.

"중독된 세상", 오늘을 표현하기 참 적당한 표현이다. 누구나 무엇인가 사는 재미를 위해 중독되어 살아간다. "재미있는 지옥, 재미없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와 닿는 현실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천국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강남스타일"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효과 범위에서 크게 확대 발생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여차피 "스타일은 스타일"일뿐이다. 그것이 강남이든 강북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즉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

얼마 전 뉴스기사에 "싸이 콘서트에 3만 관중이 함께 말 춤을 추며 강남 스타일을 따라 불렀는데 마치 부흥회현장 같다"라는 표현에 살짝 놀랐다. 경솔한 표현이라고 흥분할 수도 있으나 오늘 기독교계의 현상을 감안할 때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디 바라기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는 영향력이 있는 천국 스타일, 예수 스타일의 영적 핵 폭풍이 급하고 강하게 불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에는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메달을 놓고, 축구는 한국이 토포하게 이겼지만 다음에 벌어진 여자 배구는 안타깝게 저서 희비가 엇갈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도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흥통할 때가 있으면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다면 나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서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마음을 잘 지키려면,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위치를 두고 있는 곳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두는 위치가 중요함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홍해 바다 앞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위치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출14:11-13)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께 둔 모세에게는 담담함과 믿음과 승리의 확신, 그리고 긍정의 힘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의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나, 광야에서 쫓기고 있을 때나, 사울 임금에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나, 자식이 반란을 일으킨 난감한 상황에서나, 심지어는 범죄 하여 책임을 받을 때에나 항상 마음의 위치만큼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 모든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승리와 실패, 복과 저주, 선과 악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알은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스스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여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께 두는 지혜로운 신앙과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끌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몸의 위치는 다 같은 홍해 바다 앞이었지만 마음의 위치를 상황과 환경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자 동 차!

도네이션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일것입니다.

주관 : 기독일보 후원 : NARA AUTO 바디, LA 정비 연락처 : 기독일보 213-739-0403

식욕을 다스리는 데 이만한 게 없다

다이어터들을 위한 대안푸드

녹차 · 호두 · 브로콜리

녹차의 카테킨 식욕 억제에 효과

올레산 풍부한 호두 항산화 효과

베타카로틴 풍부한 브로콜리 '수퍼푸드'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는 못 참겠다.” 애너하임에 사는 스칼렛 박(47) 씨의 하소연이다. 건강을 위해 모처럼 각오하고 다이어트에 돌입한 박 씨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때뿐인 식욕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도통 수그러들 기미가 들지 않는다. 왕성한 식욕,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단순히 의지와 노력만으론 식욕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다이어터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일까. ‘다이어트는 곧 식욕조절’이란 공식이 암암리에 존재할 정도다. 하지만 무조건 식욕을 참고 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범위의 식욕은 때로는 ‘참는 것’보다 먹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잠시나마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알아봤다. 이름하여, 다이어터들을 위한 ‘대안푸드’다.

맨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각종 차 종류다. 식욕 억제하는 데 이만한 게 없다. 녹차를 식전에 마시면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프랑스 연구팀이 비만한 자 70명에게 하루 3잔씩 녹차를 마시는 것과 비슷한 분량의 카테킨을 2개월간 복용시킨 결과, 몸무게가 평균 9lb씩 줄어들었다. 또 녹차를 식후에 마실 경우에도 지방 분해와 연소를 촉진시켜 다이어

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도 지나친 음용은 금물이다. 한방에서는 녹차가 우리 몸의 열을 식히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평소 몸에 열이 있고 손발이 따뜻하고 땀이 많은 사람에겐 도움이 되지만, 몸이 찬 사람이 녹차를 많이 마실 경우 잠이 오지 않거나 기운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허브 차 중에서는 약간 시큼하고 새콤한 향이 나는 ‘히비스커스’ 차가 식욕을 억제하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요즘 인기 상승중가를 달리고 있는 마테차도 포만감을 유발해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의 하나인 올레산이 풍부한 음식들도 소장에서 OEA(oleoylethanolamide)로 전환되어 식욕을 억제한다. OEA는 배고프지 않다는 메시지를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레산은 특히 호두,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식사와 식사 사이 또는 입이 심심할 때 호두나 아몬드, 캐슈넛 등 견과류를 한 줌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져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미 스크랜튼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에 호두 7개만 먹어도 질병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 견과류 중 항산화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도 호두다. 특히 생호두에 포함된 항산화제는 비타민E에 비해 15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산화제는 화학물질이 신체를 손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 피칸에는 아연이 일일권장량의 6배가 들어있는데 아연은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혈구가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면역력이 떨어진 다이어터들에게 견과류만큼 좋은 음식이 없다. 다만 이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고 소화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들도 식욕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브로콜리를 꼽을 수 있다. 뿌리나 줄기가 아닌 꽃 자체를 먹는 채소로 다른 채소보다 영양이 2~3배 뛰어난 브로콜리는 섬유질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감자의 2배나 될 만큼 풍부해 브로콜리 작은 가지를 네다섯 덩어리만 섭취해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 섭취가 가능하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유방암 증식을 막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여성들에게 좋고, 이 성분은 폐암과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요거 하나만으로 배를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에는 브로콜리 외에도 굴, 호박, 감, 당근 등의 노란색 과일과 채소가 있다. 꿀, 자몽, 오렌지, 레몬과 같은 신맛을 지닌 감귤류 과일들은 순간적으로 식욕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 체내 과도한 지방의 흡수를 막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포만감이 좋기 때문에 이 역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라 해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자칫 병을 부르기 쉽다. 매일 섭취해야 할 영양소 중 칼슘이 부족할 경우, 뇌가 부족한 칼슘을 채우려 식욕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된다. 우유나 치즈 등의 식품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되, 일반 우유보다는 저지방우유를 선택하고, 치즈를 구입할 때에도 염분 함량이 낮은 치즈를 선택하는 편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정하나 기자



미셸의 요리 이야기



깔끔하게 한 입에 들어가는 건강식, 양송이 감자찜

유명한 야구 선수들 가운데 젊은 나이에 암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 이들은 젊은 날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통 사람보다 빨리 병을 얻는 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특히 최동원 선수는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으니 TV에 얼굴만 나와도 심장이 떨린다는 여학생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개중엔 내 친구들도 있었다. 최 선수가 운명한 날, 내 친구들도 착잡한 심경에 잠을 못 이루었다고 한다.

오래 전 강남의 한 식당에 식사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유명한 운동 선수들 몇명이 들어와 자리를 잡더니 몇십 인분의 고기를 주문해 소주와 함께 먹는 것이었다. 옆에서 흘깃 흘깃 보니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고기를 다 먹고는 또 주문을 하는 것이었다. 먹는 양에 놀라기도 했지만 계산서가 얼마나 나올지도 의문이었다.

운동 선수들은 운동 후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는다. 젊었을 때야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비단 운동 선수만이 아니다. 일반인들도 육류 소비량이 늘면서 서구에서만 보이던 대장암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졌다. 이에 따라 육류가 아닌, 채식 위주의 웰빙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만들어 봤다. 야채로 속을 채운 양송이 감자찜.

미국인들을 초대하는 모임이 있을 때 에피타이저로 내어도 그럴 듯 하다. 미국에선 싱싱한 버섯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육식 애호가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니 이만한 메뉴가 없다.

도움말: 미셸의 요리 이야기
문의: (562) 896-3090

〈맛있는 재료〉

양송이 버섯..... 8개	홍피망..... 1큰술
감자..... 2개	당근..... 1큰술
마른 표고..... 1개	칠리 소스..... 약간
청피망..... 1큰술	소금..... 약간



1. 양송이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속재료를 채우기 좋도록 밀등을 떼어 낸다. (양송이는 속을 채워야 하니 마트에서 구입할 때 되도록이면 큼직한 것으로 구입하는 게 좋다.)
2. 감자는 깨끗이 씻어 필러로 껍질을 깎은 후 갈아 놓는다.
3. 분량의 표고버섯은 물에 담가 불린 후 굵게 다져 놓는다.
4. 나머지 재료인 청피망, 홍피망, 당근을 깨끗이 씻은 후 역시 다진다.
5. 갈아 놓은 감자에 준비해 놓은 청피망, 홍피망, 당근, 표고버섯을 넣고 잘 섞는다.
6. 준비된 재료를 양송이에 스푼을 이용하여 소복하게 담는다.
7. 찜기에 물을 넣고 수증기가 올라오면 준비한 양송이를 찜기 받침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8. 10~15분 정도 찜 후 젓가락으로 찢어 보아 감자가 익은 것 같으면 꺼내 접시에 담아낸다.

CULTURE N LIFE

일본의 전통이 깃든 음식 스시, 제대로 알고 먹자
스시를 즐기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예법



할리우드 스타들의 집합지

LA 퓨전 일식 체인레스토랑 '카츠야'

27세 젊은 셰프 우에치 켄타로를 만나다

● 일본의 식문화를 엿보다

스시 메카니즘 속으로!

세계인을 사로잡은 스시

자고로 일본의 식문화를 논한다면 대표 주자 스시(Sushi)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금이야 세계인이 인정하는 글로벌 푸드에 속하지만, 1964년 도쿄 올림픽 때만 해도 얘기가 달랐다. "어찌 낱생선을 먹는 야만국에서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겠나"라는 내용의 기사가 타임지에 실릴 정도였으니. 그러나 근성을 지닌 일본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요리인들의 노력과 맑은 물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고, 올림픽을 무대 삼아 그들은 문화와 음식을 알렸다. 그 결과 이제 '일식' 하면 고급브랜드로 상징될 만큼 열매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성공요인을 '문화의 집약체로서의 일식'을 홍보한 전략에 있다고 분석한다.

스시 HISTORY

스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먼저 그 역사를 살펴 보자. 기원전 4세기 동남아시아에서 밥과 소금 속에 생선을 넣어 보존한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쌀이 자연발효한 탓에 생선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이렇게 발효된 밥은 냄새가 너무 심해 먹을 수가 없었다. 이 보존 방법이 2세기 중국으로 건너갔고 7세기 무렵 일본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선 헤이안 시대에 유행했던 '나레즈시(발효초밥)'가 시조다. 붕어 내장을 깨끗이 빼낸 뒤 밥알을 채워 돌려 돌려 돌린 것이 바로 그것. 물론 이 때도 밥은 먹지 않았다. 생선만 골라 먹었다.

쌀밥과 생선을 같이 먹기 시작한 건 15,16세기 무로마치 시대부터다. 19세기 에도시대 중기에 비로소 발효시키지 않은 싱싱한 낱생선을 밥 위에 얹는, 오늘날의 스시가 등장했다.

스시 HOW TO EAT

스시는 먹는 법에 따라, 젓가락과 손가락과로 갈린다. 젓가락과는 테이블석을 이용하는 반면, 손가락과는 카운터석을 고집한다. 스시를 빚는 셰프와 대화도 나누고 교감하면서 먹기 위해서다. 대체로 단골 맛객들이 카운터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손가락과는 스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집은 후 옆으로 살짝 돌려 거꾸로 잡는다. 그리고선 간장에 살짝 찍어 한입에 쏙 넣는다. 이때 혀에 생선이 가장 먼저 닿도록 하는 게 정석이다. 전문가들은 간장을 생선에 찍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스시에 대한 조예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가만히 보라. 당신은 스시 먹을 때 간장을 어디에 찍는지를, 생선에? 아닌 밥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선에 찍는 게 정답이다. 밥에 찍게 되면, 한순간에 스시가 엉망이 된다. 먹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간장이 밥에 금방 흡수돼 필요 이상으로 짜진다. 이 원칙은 젓가락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알싸한 고추냉이 고유의 향과 생선 맛을 동시에 즐기려는 미식가들 사이에선 고추냉이 먹는 법도 따로 존재한다. 생선 중앙에 조금 얹어 말아서 먹는 법을 가장 많이 애용한다. 이렇게 하면 생고추

냉이의 독특한 맛은 물론 생선의 맛도 최대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생선 한쪽에 발라 먹는 부류, 아예 간장에 풀어 먹는 부류가 있다. 또 하나, 녹차와 장국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 둘 중 뭘 먼저 먹는 게 바른 선택일까. 밥과 국을 함께 먹는 습관에 길들여진 한국인은 으레 장국을 먼저 찾지만, 스시 고유의 맛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녹차로 혀를 씻어가면서 먹어야 한다. 여러 생선을 먹다 보면 각각의 맛을 음미하기가 힘들어 지는데, 이렇게 생선 기름 등으로 탁해진 입 안을 녹차가 개운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 녹차 대신 알싸한 생강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장국은 입 안을 툇툇하게 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보통 스시를 다 먹은 뒤 마지막에 장국을 후루룩 마신다. 한편, 똑같은 스시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 기름기가 적은 것에서 많은 것 순으로, 담백한 맛에서 진한 맛으로 옮겨가는 것이 원칙이다. 도미같은 흰살 생선에서 시작해 참치→전어→고등어→장어 순으로 가고 마지막은 '후토마키(김초밥)'로 마무리한다.

LA서 소문난 스시 레스토랑 '카츠야' 떠오르는 셰프 우에치 켄타로 인터뷰

자, 여기까지 스시도(鮎)를 익혔다면 이제 떠나볼까. '일식의 메카' LA에서 소문난 스시 레스토랑을 찾아서.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퓨전 일식 체인 레스토랑 '카츠야(Katsuya)'가 주류사회에선 미

식의 대명사로 통한다. 그래서 이곳의 셰프를 만나왔다. 인터뷰에 응한 이는 '카츠야' 그룹의 대표이자 메인셰프 우에치 카츠야 씨의 아들, 우에치 켄타로(사진) 씨다. 그는 현재 LA에 5개 분점을 둔 '카츠야' 그룹의 뒤를 잇기 위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나이는 아직 27살. 성공한 셰프치고는 젊은 편이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대. 그에 따르면, 1997년 스튜디오 시티(Studio City)에 1호점을 개설한 이래,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꾸준히 메뉴를 개발해 온 것이 '카츠야'의 성공 비결이다. 요리에 깃든 철학을 물으니, '엄격함'을 첫째로 꼽는다. 가령 접시 위에 올린 양파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안 된다는 것. 그러나 그만큼 집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 접시 한 접시의 요리에 열정과 정성을 담아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 또 하나 중요한 철학으로 '깨끗함의 미덕'을 자랑으로 삼는다. 식당 외관은 물론 내부, 화장실, 셰프 본인까지 아름다워야 한다는 지론이다. 이곳의 요리는 단순한 정통 일식만 고수하지 않는다. 기본은 일식이되 아메리칸 스타일을 가미한 퓨전 요리가 대부분이다. 인기메뉴 중 하나인 '마리네이드 비프 쇼트 림(Marinated Beef Short Rib)'을 보자. 소갈비를 간장, 혼다시, 미림 등을 넣고 삶은 뒤 일본식 된장 '미소'를 그 위에 뿌린다. 그리고는 얇게 썰어낸 할라피뇨를 올려 오븐에 구워낸다. 여기서 매운 맛을 내는 할라피뇨는 엄밀히 말하자면 일본 고유의 식재료가 아니다. 태평양을 건너야만 맛볼 수 있다. 그래서

퓨전인 것이다. '카츠야'는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도 자주 찾기에 파파라치들이 진을 치고 잠복 근무하는 아지트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매운 참치를 얹은 크리spi 라이스(Crispy Rice with spicy tuna)'. 가격은 9불이다. 이 메뉴 하나로 하루 300여 접시의 매상을 올린다. 이밖에 '구운 크랩롤(Backed crab roll)', '매운 양파를 얹은 날개다랑어 스시(Spicy Albacore with crispy onion)', '할라피뇨를 얹은 방어 스시(Yellow tail with jalapeno)'도 뒤를 잇는 인기메뉴다. 현재 스튜디오 시티에 있는 키와미(Ki-wami) 본점 외에 엔시노, 웨스트할리웃, 맨하탄비치 등 5개 지점을 갖고 있다. 먹으러 간다면 예산은 보통 1인 31불에서 60불 정도로 잡으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atsuya-yagroup.com>

키와미 스튜디오 시티점
▷주소: 11920 Ventura Blvd Studio City, CA 91604
▷전화: (818) 763-3910
▷웹사이트: www.katsuya-yagroup.com/kiwami.html

스시 카츠야 스튜디오 시티점
▷주소: 11680 Ventura Blvd Studio City, CA 91604
▷전화: (818) 985-6976
▷웹사이트: www.sbe.com/katsuya

정하나 기자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증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하십니까!!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0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이민국 및 법원 서류 일체

(최고 저렴한 가격)

- ▶ 종교비자 (R-1 & I-360)전문
- ▶ 가족 및 결혼 영주권, 제반 서류 일체
- ▶ 비영리단체 (교회, 선교단체)

한미 기독교 봉사회 Tel. (213) 305-2344
1300 W. Olympic Blvd., #202, LA, CA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사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유익종 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 교통사고
- * 즉시 효과보는 침
-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종
Yoo, Ik Jong L.A.C., Q.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작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 트랜스미션
-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 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녹과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수질안전, 이온 활성수, 경제성 확보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반영구적 집안, 밖 100%사용
-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co.kr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윌빙염, 아재염 \$50.00
하이라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펌 \$80.00

반드시 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52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등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울림피과 놀란드 신한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최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방울머핀에서도 식을 멈추 있습니다.

내장비만 & 다이어트

현대의인 고지방인 비만 몸 속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배고픔이 없고 요요현상 또한 없이
위장이 줄어들 소식생활로 건강해집니다.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금문 때까지 치료)

양방/한방 두가지 치료를 병행하여 뇌기
자연적으로 엔돌핀을 생성하게 하여 니코틴을
찾는 것을 막음으로 담배를 끊게됩니다.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 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오완석 변호사 법률 상담

불체청소년 추방유예법안 관련 일문일답

8월 15일부터 신청서 이민국 접수 시작

불법체류 청소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시행령이 오는 8월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추방유예 신청으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의 추방명령이 중지되고 work permit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등의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법 오완석 변호사는 “자격조건이 충족될 경우 추방유예신청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소셜번호도 발급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또한 추방유예 승인이 난 뒤 인도적, 교육적, 취업적 사유를 설명하면 여행허가서 발급도 허용됨에 따라 해외 여행 자유권도 갖게 돼 신분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불체 청소년들에겐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신청게시일이 임박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과 관련한 상담 문의 건수가 크게 증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번 추방유예법안과 관련, 수혜대상자 자격여부 및 신청방법 등 시행세칙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짚어 봤다.

-추방유예 신청자격은

16세 생일 이전 미국에 밀입국했거나 입국 후 체류 신분이 만료된자로 법안이 발표된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31세 미만자로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자야 한다. 또한 6월 15일 기준으로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 졸업자 또는 고교 동등 학력인증서(GED)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중범죄(felony), 중대한 경범죄(significant misdemeanor), 혹은 3번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국가 안전과 공중 안전에 위협을 가한 범죄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범이란 1년 이상의 형을 산 범죄이고, 중대한 경범죄로는 성폭력, 마약 공급, 가정폭력, 강도, 불법 무기 소지 및 사용 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포함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나.

드림법안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영구적인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수혜 해당자들에 대해 단지 2년간의 임시 추방유예 자격을 부

여해 체류를 허용하고 합법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WORK PERMIT)증을 부여하며, 법안이 지속가능한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 또 신청 수수료는?

8월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사전접수가 허용되지 않아 15일 이전 도착한 신청서는 곧바로 거부된다. 추방유예 신청은 수수료가 없으나 워크퍼밋 및 신청은 현행대로 신청서 처리 수수료 380달러와 지문 날인비 85달러를 합쳐 총 46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나?

이번 추방유예 조치는 워크퍼밋 발급을 함으로써 이것으로 소셜번호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 취득도 가능하다.

-추방유예 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

일단 원칙적으로 재심은 없다는 것이 이민당국의 공식 발표다. 재심 신청 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일단 추방유예 신청이 승인이 난 경우에 인도적, 교육적,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여행이 필요할 경우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합법비자 취득이 진행되고 있다면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한가

합법 신분취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구제대상이 아니다. 구제 대상은 반드시 지난 6월 15일 불법체류 신분이야 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16세 생일 이전 입국을 증명하는 항공티켓이나 여권안에 찍힌 stamp, I-94 등의 서류, 5년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할 은행, 병원기록, 공과금 납부 기록, 세금보고서, 초중교 성적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재학중인 경우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제출해야 한다.

고등학교 동등 학력 인증서인 GED

는 2012년 6월 15일이 지나서 취득하더라도 서류접수 전까지만 취득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수수료 과정은?

15일부터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childhoodarrivals)에 추방유예 신청서가 공개된다. 이 신청서와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작성해 수수료 465달러와 함께 지정된 사서함에 우편으로 접수시키면 된다. 서류접수 후 이민서비스국에서 통지가 오면 산하 신청서수속센터(ASC)에서 지문과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15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될 경우 서류는 자동으로 기각된다. 접수시킨 서류의 진행 상황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

글렌데일에 사는 앤드류 김(29) 씨. 여섯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왔다. 어린 나이에 언어와 문화는 물론 주변 친구들과 바뀐 상황에 적응하느라 김 씨는 꽤나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 그러저럭 적응하면서 살다가 세가 기울어지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고교 졸업장을 포기한 채, 서울에 간 그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쳤고,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대를 다녀왔다. 그후 그의 나이 스물 세살 때 미국에 다시 들어와 현재까지 체류 중에 있다. 그리고 4년 전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적이 있다.

김 씨의 경우, 과연 이번 추방유예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오 변호사는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경범죄는 중대한 경범죄에 해당 되지 않아 괜찮다”며 “다행히 김 씨의 경우 경범죄 기록이 일회성에 그쳤고, 고교 졸업증명서(GED)만 받으면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16세 이전에 미국 입국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혜택 여부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변호사는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 3735 Hughes Ave. LA)에서 이번 추방유예법안과 관련해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며, 추방유예에 필요한 신청서 양식도 제공한다.

문의: 213-487-1122

정한나 기자

태권도로 중남미에 복음의 씨앗 뿌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태권도협회 박인곤 부회장 인터뷰



윗줄 가운데가 박인곤 단장.

얼기는 뜨거웠다. 우렁찬 구름소리를 내는 아이들의 선한 눈은 매섭게 변했고, 이들을 지도하는 사범들의 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Lee 태권도장을 얼마 전 인수받은 박인곤 단장(세계성경장로교회)은 멕시코에서 태권도 선교에 발을 담은 지 3년 됐다. 그는 이곳에서 번 수입으로 매주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티와나와 엘세나다에 가서 그곳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선교를 펼치고 있다.

“멕시코 선교를 희망하는 자들을 육성해 함께 선교를 나갔으면 하고, 시범단하고 선수들도 많이 육성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4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지를 찾던 중에 멕시코에 가게 돼, 현재 현지인들 중 유 단자가 많이 나왔고, 그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도장을 차려주면 그들 스스로 중증에는 태권도를 가르치고 주 일에는 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우수성을 전하고 복음도 전하니 일석이조입니다”

선교를 하면서 박 단장이 느끼는 아쉬움도 있다.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의 학비는 기숙사비를 포함해 50불인데 그 돈이 없는 학생들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카이로프락틱과 경혈지압 기술을 습득한 그는 운동뿐만 아니라 간단한 의술을 행하며 치료법도 교육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신학교 운동을 겸비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간다. 이들이 도장을 차리는데 비용은 2천불이 소요된다. 박 단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선교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거리 상 가까운 중남미 선교에 관심이 있

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에 부름을 받은 것은 2008년에 수술을 받고 감사하게도 건강을 회복하게 됐는데 곧 허무함이 밀려온 때였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죠. 남은 여성 선교하는 인생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 단장은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워, 9단에 오른 지 10년이 넘었다. 국기원 최고 태권도 9단자회 미국협회를 맡고 있고 미국에 국제대회가 있을 때 심판을 역임했다. 미국에 건너 온지 27년이 됐으며, 현재 그가 운영하는 도장에서는 만 4세부터 시작해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외에 그는 한국국가대표 시범단에 있었으며, 어린이 시범단 단장도 역임한 경력이 있다.

현재 그의 센터에서는 건강에 주의를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중장년층인 어머니들을 위한 반을 육성할 계획에 있다. 또 태권도는 물론 에어로빅과 호신술 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지압침대도 있어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강력한 발차기를 특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무술 태권도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 “태권도를 배우면 자신감이 생기고 인내와 끈기가 길러지며, 집중력이 향상되고 지도력도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미국에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되기도 하죠. 1일 훈련시간이 50분이니 운동효과도 만점입니다”

문의: 213-245-8178, 213-604-2154

토마스 맹 기자



가스펠하우스

Gospel House
Cafe & Music
serving lunch & dinner

그랜드 오픈

323.426.9254

425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베벨리와 놀만디, 구 Pizza Hut 건물)










SUPER STORE

감사합니다.

미국 전체 에쿠스 판매 **1위**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1위**
 2012년 서부지역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1위**

8월 특별 세일

돈 한푼 없이 첫달지 할부금도 안내고 디파짓없이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차와 선물, 혜택을 그냥 드립니다. 듬뿍 가져 가세요.

\$0 Down Payment | **\$0** First Payment | **\$0** Security Deposit



2012 NEW EQUUS

MSRP \$59,650 (STK:045620)
 RESIDUAL \$25,650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635 + TAX

2012 NEW GENESIS 3.8L

MSRP \$35,260 (STK:193210)
 RESIDUAL \$16,572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357 + TAX

2013 NEW SONATA GLS

MSRP \$22,010 (STK:511730)
 RESIDUAL \$12,105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ECO TRADE



\$212 + TAX

8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8월1일~31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8월 한달간 무이자(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2012년 소나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한함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김
 714.797.3571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